

성도의 빛 12

1972





영감의 메시지

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만민에게는 선하신 뜻이라.” 얼마나 간결한 표현이냐! 그러면서 그 의미 심장함과 절실함을 비교할 곳이 있을까! 성탄을 맞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사명과 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의 탄생을 경하합니다. 그의 탄생으로 이 땅은 평화를 약속받았고 세상 만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신 뜻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간직한채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탄생할 수 만 있다면 우리의 이 생애가 얼마나 더 행복하고 단란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지니고 오직 순수한 것을 추구하고 공의와 덕과 명예와 진리와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는 모든 것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자연히 우리는 불순한 것과 불명예스러운 것과 사악한 것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이웃에게 선한 뜻을 품어 친절할 말로 대하고 희생과 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친다는 사실이 전해질 수 있는 행동을 이웃에게 보인다면 온 인류의 행복과 지상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탄절은 구세주가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온 세상에 외쳐 전한 뜻을 우리의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이 세상에서 실현시키겠다는 결의와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가다듬는데 적절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하신 뜻을 서로서로 이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합시다.

순서

	영감의 메시지
1	여러분의 잡지
2	성탄절 의미: 그리스도
4	내가 주리고
6	내가 헐 벗고
8	성도들과 온세상에 드리는 권고의 말씀
10	결정의 시간
14	신권의 사명
16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일을 하는가?
20	사랑스런 아이의 선물
21	빛의 향연
22	온나라의 어린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24	겨울 양식
26	리코의 크리스마스
29	제니의 특별 성탄
32	가장 값진 선물
34	성탄은 나눔으로서
37	나는 기억하고 기억하노라
38	마리아
41	로렌조 스노우: 한 대학생의 결정
46	선교부장단 메시지
	내외 소식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2년 12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82호

편집겸 발행인: 엘 에드워드 부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월간

1972년 12월호

제8권 제12호

● 대관장단

해럴드 비이 리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심의 사도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타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이 부라운

하우워드 더블류 헌터

골든 비이 힝크리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팩커

앨빈 제이 애쉬튼

부르스 아아르 맥콩키

정가: 1권 10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이달의 잡지

풍속에 따라 성탄절을 축하하는 방법도 가지 가지입니다. 남반부에서는 무더운 여름에 성탄절을 맞고 북반부에서는 추운 겨울에 성탄절을 맞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이러한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이의 탄일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참 성탄의 열이 어릴 것입니다.

대체로 성탄절이 경축되는 곳에서는 선물을 주는 행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선물은 비싼 것일 경우도 있고 조촐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전달되고 또 받게 될 때 그 가치를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귀한 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주 값진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관례에 따라 전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전혀 참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지 오랜 세월을 두고 기념이 될 수 있으며 또 누구나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으니 이것이 참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사랑과 봉사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기의 신권의 뜻을 이행하는데 더욱 헌신적인 자세로 임하고 또 주를 섬기는데 있어 전력을 다 하므로써 신권의 축복이 온 가족위에 부여될 수 있게 하는 것 보다 더 큰 축복을 불러 올 수 있겠습니까? 지도력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어머니가 허가할 수 있는 선물로서 남편을 한 가정의 가정으로 받들고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협력하는 것 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자녀로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저희를 끼리 화목하게 지내므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룩하는 것 보다 더 큰 선물을 가족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거나 혹은 개인의 자격으로 훌륭한 모범이 되어 서로 서로 복음을 나누는 것 보다 더 큰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것이 누구 나가 줄 수 있는 아주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6~7.



보라 그는 우리 선조의 땅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뿔힌 그릇이요 청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라.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엘마서 7:10~11.

성탄절 의미

구세주를 생략한 성탄절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첫번 성탄을 맞아 천사들이 노래할 때 저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찬양했으며 그리스도를 노래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작은 아기의 탄생은 참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연유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를 기뻐한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사명을 이해했던 까닭에 노래를 불렀고 그의 구속의 뜻과 영생의 의미를 이해했으며 부활과 대속의 깊은 뜻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그 천사들처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성탄절을 통하여 그의 높으신 뜻을 이 세상에 새롭게 상기시켜 주시며 우리는 마땅히 이 성탄의 의미를 더욱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다.

이 날은 진정 거룩한 날이요 마땅히 경축되어야 할 날입니다. 경축이란 말이 사전에는 “영광스럽게 하다, 기념하다, 경하다” 등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은 위에 언급한 모두를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숭선하여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 오늘 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로 세상에 전하게 한 말을 이루어 보이리로다.

니파이삼서 1:13.

: 그리스도

에 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너무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되시는 이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첫 성탄의 밤에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아기의 탄생을 모두모두 축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렇게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탄생과 업적을 경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영을 지닐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진대 미움과 시기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를 강압하는 자를 용서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방문하기도 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세상의 속된 티끌을 깨끗히 씻어 버리는 등, 아니 이보다 더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가족과——모든 개인은——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아 여러 가지로 경축 행사를 가지겠지만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겸손한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겠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를 모두 다 지키려는데 거듭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

만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사판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천사가 이르러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복음 2 : 6, 7, 10, 11, 14.

내가 주리고

한글

1972년 12월호



때는 성탄절이었지만 도노반은 우울하기만 했다. 평생
을 두고 음식을 구걸해 본 일이 없는 그는 온통 가슴이 두
근거리고 부끄러워서 어둔 그늘에 가려 신채 정장을 한 신
사가 문앞으로 와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을 때 아주
작은 소리로 간청을 했지만 그 신사 옆에 서있는 아름다운
여인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그 간청의 소리를 듣
지 못했다. 도노반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고 도움을
청했다.

“저 죄송합니다만, 저는 몹시 배가 고픈니다. 제게 음식
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원 아무 일도 할게 없나.”

그 신사는 아주 불쾌한 소리로 투덜댔다.

“아젠장 도처에 일자리가 있단 말이야. 가서 아무 일이
나 잡아 하면서 제 손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

그는 다시 문쪽으로 돌아 섰다.

도노반은 얼굴이 화끈 달아 올라서 비실비실 어둔 그늘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말았다. 그는 벌써 여러 주째 일자
리를 찾아 고된 길을 걸어 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
었다. 그는 부끄러움으로 달아 오른 얼굴을 한 채 힘없이
건물 벽에 몸을 기대고 섰다.

“술 주정꾼야!”

자못 노기가 어린 그 신사의 소리였다.

“저런 놈들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해!”

그러나 그 옆에 선 여인은 좀 더 자세히 어둠 속을 응시
했다. 그리곤

“아이, 여보, 오늘이 성탄절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배
가 고픈 거예요.”

그녀는 작은 구슬 뺨을 열고는 급히 도노반에게로 달려
가 일불짜리 하나를 그의 손에 들려 주었다.

“자 이것으로...”

그녀가 말했다.

“음식을 좀 사세요. 그리고, 당신이 성탄의 빵을 잡숫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노반이 대답했다. 그는 일불짜리 지폐를 힘껏 움켜 쥐
고 그곳에서 얼마큼 떨어진 곳에 있는 값싼 음식점으로 황
급히 달려 갔다. 그러면서 그는 그녀의 친절함 음식과 미
소를 생각하며

“그녀가 꼭 천사와 같다.”

하고 꽤 큰 소리로 중얼거려 보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돈으로 과연 무엇을 사야 할까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잘 계획하기만 하면 저녁을 잘 먹
고도 돈 절반을 남겨 내일에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성탄의 빵으로 방금 생각해 낸 그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때
까지는 버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다가 어두운 복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늙은이를 보고는 멈칫 했다.

“여보시오 노인, 같이 잡시다. 내가 얻은 성탄의 빵으로 적어도 두 사람은 요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들은 식당에서 접시 바닥에 흠집이 생길 정도로 깨끗하게 해치웠다. 도노반은 그의 초청객이 빵 조각과 파이를 나프킨에 정성스레 싸서 든 것을 발견했다.

“내일 드실려구 그러시나요?”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며,

“저, 토미라고 하는 신문팔이 아이가 있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대요. 이걸 그 아이에게 주려구.”

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 내 파이도 가져 가지지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성탄의 빵이라!”

그는 자못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토미는 빠른 동작으로 나프킨을 풀어 빵과 파이를 먹으면서 부스러기는 옆에서 떨고 있는 개에게 조심스럽게 털어 주었다. 도노반은 사뭇 공포에 떨고 있는 개를 번쩍 들어 올려 털을 쓸어 주었다. 그러다가 그는 목에 붙은 개표에 눈이 갔고 그것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살펴 보기 시작했다. 그 개표에는 개 주인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너를 잃고 너의 주인 소년은 펍 슬퍼하고 있겠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가자 너를 데려다 줄테다.”

도노반은 개표에 적힌 주소를 들고 먼 길을 걸어야 했지만 끝까지 개를 품에 안고 걸어 마침내 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부인이 먼저 나와 도노반을 찰떡보고 들어가더니 다시 남자가 문으로 나와서 아주 의심스럽다는 눈으로 그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역시 가져 오셨군.”

그는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상금을 원하시겠군. 아니 이미 우리 개를 잃기 전부터 상금을 기대하셨는지도 모르지.”

“저는 도대체 상금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도노반은 힘껏 그의 입장을 설명했다.

“더군다나 상금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신문팔이 소년 하나가 이 개를 길에서 주웠더군요. 이 개가 집을 잃은 개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이리로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그의 진지하고 솔직한 설명의 이야기는 자못 떨려 나왔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치기는 했으나, 그 솔직함에 탄복한 주인은 즉시 자기의 경박함을 사과했다.

“아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이야기했다.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상금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 분실 광고에 상금 이야기를 언급했고 선생께서 그 상금을 벌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는 도노반에게 금일봉을 쥐어 주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저 혹시 직장을 구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우리 공장에 경비원이 한 사람 필요하게 되었는데 당신과 같은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그는 만면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도노반의 손에 명함을 쥐어 주었다. 그리고는 돌아서 걸어 나오는 도노반의 뒤에 대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었다. (작자 미상)

내가 헐벗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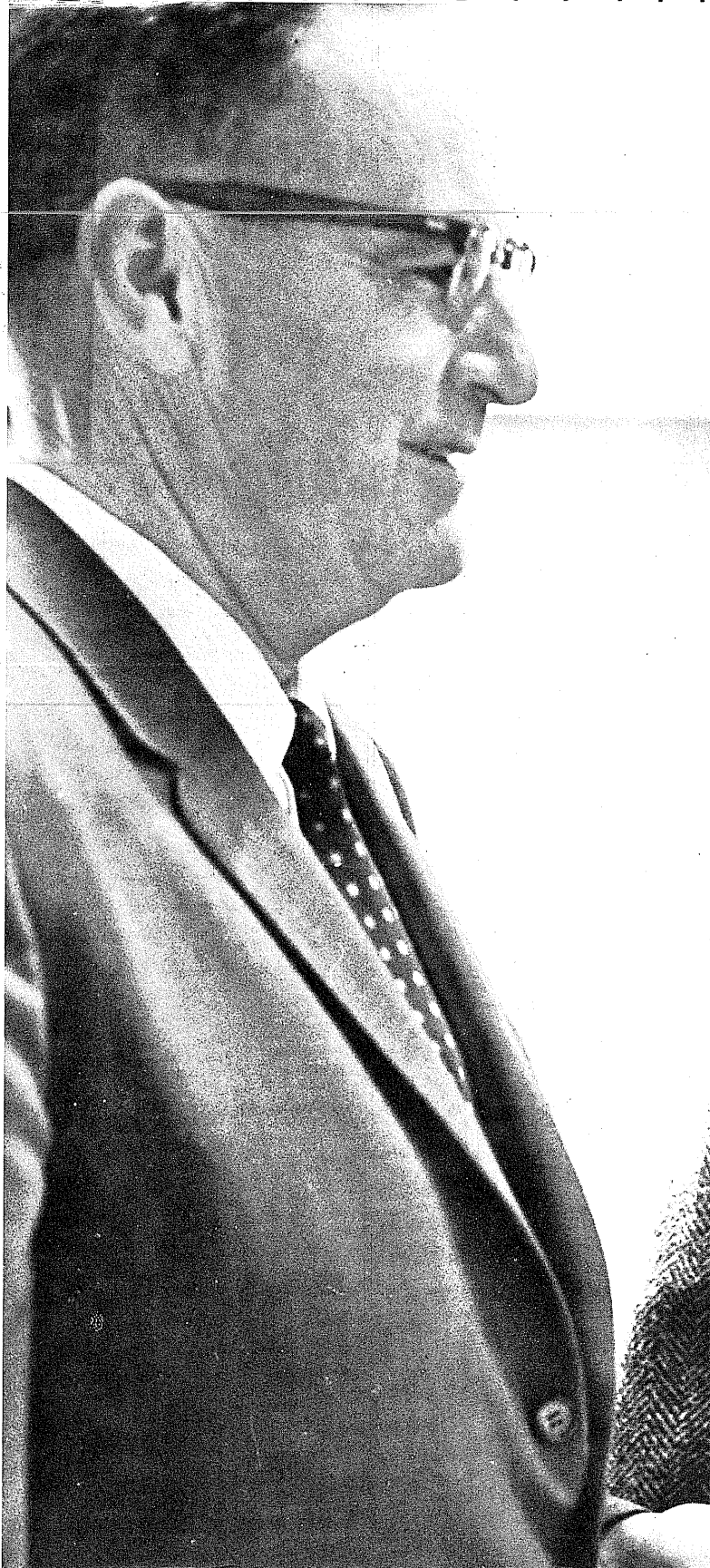
젊은이는 시내 양복점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20불짜리 다섯 장을 꼭 움켜 잡고 포켓트에 손을 찌른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절대로 잃어서는 안될 돈이다. 선교사로 떠나면서 입을 새 양복 한벌과 코트 한벌을 장만할 돈이기 때문인 것이다. 선교 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돈이 그랬듯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100불도 많은 고난을 겪은 끝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아진 것이다. 조심스럽게 계획도 했고 철저한 금전 관리와 결심으로 주님을 위한 특별한 봉사를 하는 동안의 필요한 경비를 저축했던 것이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앞길을 막고 우뚝 서는 바람에 그는 일단 주춤했으나 앞길을 막고 미소를 띤 채 손을 내미는 사람의 얼굴이 이내 시야에 들어 왔다. 바로 앤튼 밴 올든씨였다. 그는 아버지께서 별세하기 전에 가깝게 지내시던 아버님의 친구였다.

밴 올든 형제는 벌써 여러 해를 두고 헤일 가족에게 여러 가지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추수 감사절에는 칠면조를, 그리고 성탄절에는 온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을, 그리고 때때로 어머니를 위해서 현금 얼마큼씩을 보내 주셨던 것이다.

바로 그분이 앞길을 막고 서서 말스텐의 건강과 주변의 여러 가지 일을 묻는 것이었고 젊은이는 좀 계면쩍은 태도로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것이다. 말스텐은 밴 올든 형제에게 웅색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입고 싶다는 인상은 추후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묻는 이야기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 밴 올든 형제는 그가 선교사로 떠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아마 부름을 받았을거다.



유신으로 안정하고 안정에서 통일하자.



그러니 곧 떠나겠지. 사실 말스텐은 그때 선교사 예바 소집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선교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장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양복과 오바 코트를 사려고 나온 것이다. 물론 맨 올든 형제와 잠시 시간을 더 나누어도 좋고 그분이 가시는 고급 상점으로 따라가 동반해 드려도 별일은 없는 것이다.

가족의 은인이신 이분이 말스텐을 만난 기회를 펴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으나 말스텐은 이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이 노신사가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분의 도움이나 희생을 쉽게 받아 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그분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맨 올든 형제는 끝까지 미소로 말스텐을 붙들었다.

마침내 값비싼 양복과 오바 코트와 중절모가 선택되었다. 말스텐은 반대했다—너무 비싼 것들이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맨 올든 형제는 끝까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스텐리 헤일의 아들은 마땅히 최고급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다소 흥분해 있었다. 말스텐은 계속 버티다가 중내는 대단한 열의로 권하시는 이 노신사께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네가 떠나기 전에”

노 신사가 입을 열었다.

“왜 자네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내게 그토록 중요하고 또 기쁜 일인지를 설명하겠네.”

“내가 이 나라 이 땅으로 이민을 온 것이 내 나이 열 네 살 때였다네. 그때 영어도 할 줄 몰랐고 가진 돈이나 친구도 없었지. 나는 그때 두려움으로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한번 잘 살아 보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했다네. 그때 누군가가 나를 스텐리 헤일씨에게로 보내면서 그분이 나를 “잘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했다네. 그 때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자네 부친의 온정을 곧 이해했다네. 내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그분의 사무실에서 자도록 해 주시며 덮고 잘 모포도 가져다 주셨거든. 내가 내 돈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음식도 대 주셨다네.”

“나는 이 이야기를 스텐리 헤일가의 막내 아들에게 들려 주겠다고 생각했고 참으로 오랫동안 이 시간을 기다렸다네. 그러니까 나는 스텐리 헤일가의 어린 아들에게 그 성자 같은 아버지께서 여러 해 전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백분의 일이라도 돌려 줄 기회를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라네. 오늘 나는 비로소 무한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일세.”

말스텐 헤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는 이웃이 곤경에 빠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베풀어진 그 도움의 손길로 해서 일어난 기적을 되새김하며 생각해 보았다.

그는 마음 속으로 예전에는 분명치 않았으나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된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거듭, 거듭 전했다.

성도들과 온세상에 드리는 권고요

조셉 필딩 스미스 전 대판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연차 총회로 나오시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총회의 여러 모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로 향하며 그분의 영을 간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를 섬기겠다는 우리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엄숙하고 거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방종을 들으실 여러분 그리고 대회의 메시지를 읽으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소개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실 여러분의 지혜로운 권고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대회는 복음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늘이 열려 우리에게 전달될 거룩한 메시지와 진리를 증거하고 서로를 권고하며 우리가 주께 대하여 우리의 할 바를 다하듯 주께 대하여 할 바를 다 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과 진리와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그의 진리를 외쳐 전하라고 명하셨으며 주의 법대로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과 가르침에 좇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도들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권고와 인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말세입니다. 말세란 환란과 슬픔과 폐허의 때를 말합니다. 말세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탄이 은거하는 때이며 최악이 횡행하고 때의 징후가 엿보이는 때입니다.

세상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이러한 질고를 치료할 방편이 없습니다. 우리의 화평을 영원하는 소망과 육적인 영적인 풍요와 하나님 왕국에의 안주는 오직 회복된 복음을 통하여서만 성취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복음을 가르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건설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고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주를 영접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나오시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것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온 세상에 외쳐 전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온 세상 사람에게 전

합니다. 주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는 여러분이 복음의 충만하고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는 여러분이 물론경을 믿고 요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받아 들이며 이 지상에 건설된 하나님의 왕국에 나와 여러분이 하늘 왕국에서 영원한 삶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아 들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빛 가운데 살며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약을 지키고 임무에 충실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옛날의 기록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도서 12:13)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전합니다.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가정은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의 목적은 영원한 가정과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



말씀

부모와 청년과 온세상 선한 백성에게

장 중요한 행사는 신전에서 행하는 인봉 의식이며 우리는 해의 영광의 결혼식을 가지면서 나눈 성약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서로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의 표준을 지키고 복음의 뜻대로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십시오. 저들에게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상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여 온 가족의 마음에 의로움이 깃들게 하십시오.

주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되는 형제들에게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모든 어머니되시는 자매 여러분, 남편을 지지하고 따르며 자녀에게 빛의 직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성은 가정의 행복을 떠 받드는 주춧돌입니다. 아

울러 한 나라의 반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남녀에게 많은 임무를 맡기시되 특히 모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모성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복음 교리[테저렛 출판사, 1939] 288페이지)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아버지 또는 성공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은 성공적인 전략가나 정치가가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합니다.”(전제서 285페이지)

시온의 젊은이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의 법대로 살고 율법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신의를 지키되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조화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의복을 늘 단정히 입으시오. 세상의 헛된 것을 극복하며 오직 세속적인 것으로만 여러분을 이끌려는 호화로운 유행이나 풍조에 밀려 그릇된 길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시오.

신전에서 결혼하여 의롭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엘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 41:10) 우리의 내일의 소망과 교회의 장래와 의로운 사업이 모두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여러분, 교회의 경전에 소개된 바와 같이 지극히 간결하고 단순한 말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우리들의 시대에 다시 새롭게 전파된 교리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전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27)고 하신 말

씀을 기억하십시오. 아울러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온 힘을 다하여 섬길 자를 택해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과부와 홀아비와 고아를 방문하며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로 때 묻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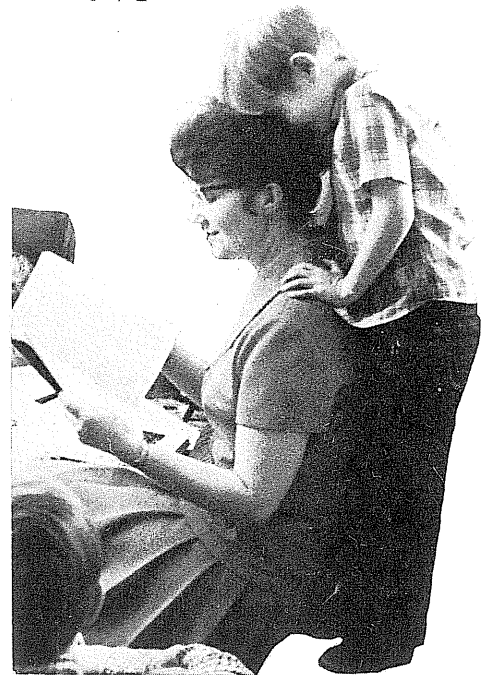
주님께서 여러분께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직도 많을 줄 압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실 리 부대관장, 태너 부대관장 그리고 십이사도의 여러분께서 영의 안내와 주님의 권세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사업과 요셉 스미스와 그와 함께 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전하신 말씀에 대하여 저 개인의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계시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영원하신 구속 사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는 말일에 온전하신 주님의 영원한 복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업이 온 땅에 퍼질 것을 확신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 나라에 복음을 가르치며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을 방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아멘. 〰





결정의 시간

1972. 4. 9 주일에 하신 말씀
해롤드 비이 리 대관장

긴장이 극도로 팽창하고 있는 바로 최근의 몇년 동안 아마도 여러분은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늘 마음 속에 지니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진 이가 다스려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는 때를 기다리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교성 58 : 22, 21)

우리는 또 구세주가 탄생하셨을 때 누가 기록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한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눅 2 : 14)

이 말씀과는 일견해서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겹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마 10 : 34-36)

그렇다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논리는 어떻게 서로 조화되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초기의 계시에는 오늘날의 세상 형편에 관하여 두 가지의 다스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악마의 다스림에 관한 것으로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한다”(교성 1 : 35)고 한 말씀입니다.

제시록이나 기타 경전에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이 살기 전에 “천국 전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12 : 7)

하나님의 영의 자녀 중 아주 영특하고 야심만만한 아들이 전세에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참여없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달성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에게 모든 권능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기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부되어 사탄이 되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는 상반되는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희생될 양”으로 스스로를 바친 것입니다. (제 13 : 8) 그리하여 그의 속죄의 희생과 구속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 3조)

사탄과 그의 무리는 인간의 의지를 빼앗으려 하였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으며 거짓과 기만의 아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여 사로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권세는 경전에 쓰인 대로 바로 주님의 다스림인 것이니, “그가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성 1 : 36)

오늘날 우리들은 잘못 인도된 지혜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들의

행동으로 세상에 밝히 증명하였듯이 저들 스스로에게 좋을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저들의 뜻대로 행하여 취하는 것이 바로 법도 되고 질서도 되며 옳고 그릇된 것도 임의로 정하며 덕스러움과 존귀로움도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늘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주장은 이제 방금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법을 정하고 자기의 법만이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인류를 다스리시고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바로 사탄의 계획과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참과 거짓의 갈등이 있어 왔고, 의로운 권세와 불의한 권세의 갈등이 있어 왔으며, 사탄의 통치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를 내세운 다스림의 투쟁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참뜻은 이제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설명해 준 내용에서도 분명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여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이 2 : 27)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니이 2 : 16)

우리가 진공 상태에 살며 세상 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진다면 과연 어떨까요?

나의 절친한 대학 교수 한 분이 책임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자기 동정에만 빠진 어떤 젊은 대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대학 교수는 마침내 그 젊은이에게 아주 헛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학생, 이제부터 내가 자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네. 대학 등록금도 내가 내고 자네의 의복이나 자동차나 자동차 연료도 사겠네. 결혼을 할 때가 되어도 자네 일체 걱정할 필요가 없네. 자네 신부감도 물색하고 집도 사주고 할테니 자네는 전혀 애쓰지 않아도 되네. 자, 나의 제안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잠시 동안 골똘히 생각하던 그 젊은이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친구는 이렇게 대답해주었습니다. “자 바로 그걸세. 내가 자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그거란 말일세. 바로 그것이 삶의 목적이며 개인이 개인의 능력으로 노력하지 않거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지 않을 때 기쁨이란 있을 수 없는걸세”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즉 선택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저명한 평론가 한 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진리란 우주의 순리이다. 운명의 근거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좌표나 진행을 변경시키지 못한다.”(프랭크 크레인)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진리 그 자체에는 발전이 없다. 다만 인간의 지혜가 발전하여 진리의 모습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며 더 넓게 응용할 뿐 진리 그 자체는 영원 불변한 것이다.”(해밀튼 라이트 매비)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잡혀 갔을

때 구세주께서는 진리를 설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때 과연 구세주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는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남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시대에 와서 구세주께서 그때 그 빌라도에게 들려 주셨을지도 모르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이니라. 이에서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초부터 거짓 말하는 자인 저 악한 자의 영이니라.”(교성 93 : 24—25)

자 이제 잠깐 동안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길잡이가 될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전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빛 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비롯되는 거룩하신 영향력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지혜를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교성 88 : 49 참조) 사도 요한은 이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요 1 : 9)이라 하였습니다.

교회의 대관장님께서 더욱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허가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이해력은 하나님의 영의 혜택으로 존재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각각 그 역량 대로 빛을 받으며…인간이 보다 높은 차원의 예지를 얻기까지 결코 그 빛이 인간을 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63, 62페이지)

경전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 빛을, 즉 그리스도의 빛을 인간의 양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인간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이의 음성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허가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이해력은 하나님의 영의 혜택으로 존재하게 된다.”

내가 젊어서 사회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교회 지도자로부터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원하는 바는 형제가 오직 마음에서 옳다고 느끼는 바를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마음에서 옳다고 느끼는 것을 실천에 옮기며 여러번 실수를 범할 망정 정치적인 조류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권고의 말씀을 사무실에 나가서 여러 사람에게 전했고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간구하는 태도의 바탕이 되게 했습니다. 아울러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을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편의는 잠시 동안을 위한 것이고 원리는 영속적인 것이다.”(헨리 와드 비처)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확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철학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면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진리의 수호자였던 사도 바울의 치혜로운 가르침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시듯 절실한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에 대처하는 그분의 비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1-2, 5)

사람이 온갖 잡스럽고 거짓된 것보다 이야기하며 정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젊은이에게 온갖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함으로써만 순결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현명한 길이며 이와같이 함으로써 사탄의 흉악스러움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어떤 사람에게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이로써 스스로를 다스리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의의적인 사탄의 철학을 크게 강조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강한 반발을 촉구하여 온 세상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번째 확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곧 과연 큰 소리로 떠들며 강력한 배경을 뒷받침으로 도전해 오는 측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묵묵히 그러나 진리와 의로움의 논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를 결정 지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옛날에 제쳤던 현명한 왕의 가르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한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이 모두 바르지 않은 것을 내세우는 일은 드문 일이요, 소수의 무리가 부정한 것을 구함은 흔히 있는 일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백성들의 원을 들어 나라의 일을 처리함을 국법으로 지켜 행할지니라.”(모 29:26)

위에 소개된 옛 왕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회원은 물론 온 세상의 지성인들이 지키게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손을 댈 때나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원리 원칙의 문제를 다루거나 공공 인사의 선출에 있어서 그 하루의 문제를 소홀히 처리하는 데 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민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네번째 문제는 “공평과 정의로써 법률을 집행하는 인물”을 뽑아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사실로서 이는 이미 하나님의 종에게 영감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교성 134 : 3 참조)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까?”라는 태도로 임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하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합니까?”라고 하는 태도로 뽑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앙개조에서 밝힌 우리의 정부에 대한 신앙을 늘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법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12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모두 우리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저들의 손에도 여러분이 손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이가 다스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키는 때를 기다리라.” (교성 58 : 22)

마지막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확신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결코 넘어지지 않을 원리가 있으며 이로써 우리는 안전의 토대 위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원리로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쉽게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대의 초기에 주어진 계시에 보면 복음의 가르침은 “저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매 알게 하기 위함이며, 지혜를 구하였으매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성 1 : 25, 26)

복음 진리의 빛으로서 우리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모로 7 : 16)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이라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 너희는 분명히 온전한 지식으로 이러한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지니...” (모로 7 : 17)라고 하신 말씀도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되는 것이 종교거나 철학이거나 과학이거나 혹은 정치이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응답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만큼 정리된 사람의 마음에 깃드는 평안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 : 9)

세계 제 이차 대전 중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군사 작전의 심각한 결정, 그러니까 그것이 전 세계의 판도를 판가름할 그런 심각한 문제의 결정을 놓고 이런 심정이었다고 술회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종교의 범주에로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경위였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위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결단을 내릴 용기를 갖게 하며, 그 다음에는 그 결과를 전능하신 신에게 일임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뢰를 가짐으로써 인간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높은 지위의 지도자거나 사업가이거나 정부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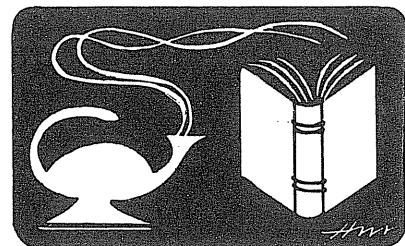
도자거나 교회의 지도자거나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거나 여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되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바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행 17 : 27, 28)

이제 저의 겸양의 마음을 다하여 내 생애에서 경험한 바 이와같은 가르침이 위대한 힘이 되어 주었음을 간증합니다. 나는 나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더욱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치루고 난 모세가 외친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무 것도 아닌 줄 알았도다. 이 일은 전에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도다.” (모세서 1 : 10)

그러나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기쁨을 맛보고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세의 도움을 입은 줄을 내가 알며 그로써 의심은 사라졌고 무거운 짐은 가볍게 되었으며 주님께 더욱 가깝게 도달했다고 인식하면서 거듭난다고 하는 참 뜻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두를 겸손히 간증의 말씀으로 전하며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시다. 아멘. 囑



아론 신권 소유자로 하여금 저들의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 주는 것은 중요하다



본 제이 피더스톤 감독
관리 감독단

신권의 사명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허가받고 얼마나 겸손하게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는 에드 가드너의 이야기를 참 좋아 합니다. 그분의 부인은 귀가 좀 나쁘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고 제십니다. 하루 저녁은 두분이 거실에 앉아 제셨습니다. 부인은 뜨게질을 하고 있었고 그분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을 보고 “여보 난 당신이 참 자랑스럽단 말이오”라고 했는데 부인은 남편을 올려다 보며 “여보 난 당신이 점점 진력이 난다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명을 받아 리 형제님과 태너 형제님께서 전화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정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분명치가 않았읍니다.

거의 이십 년째 베시 썸이면 이 신권 모임에 어김없이 참석하곤 했습니다. 오후 총회는 집에서 TV로 참가하다가 세시 이십분 전이면 이곳으로 달려가 아들들 하고 기다리든지 친구들 하고 이 모임을 기다립니다. 신권 회를 위하여 이곳 문을 열자 마자 안으로 들어와 모임이 시작될 때까지 두

시간 혹은 세 시간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나는 오직 한 가지 만을 생각합니다. 사도와 대관장단의 말씀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얼굴을 쳐다 보면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높은 위엄을 발견합니다. 또한 위대한 사랑과 이해를 발견합니다. 자제력을 발견합니다. 신권 소유자라면 누구나 갖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훌륭한 자질도 역시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 다듬어진 결의 즉 본대로 그 모습을 나의 얼굴에 새기자는 굳은 결의를 갖고 돌아 갑니다.

얼마 전 이 부름을 받고 나는 뒷 돌로 나갔읍니다. 거기서 나는 젊은 아론 신권 소유자의 무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았읍니다. 저들은 선하고 참된 젊은이들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다는 결의로 가득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관리 역원들의 모습을 닮겠다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아주 순종적이고 지도자의 가르침에 잘 따릅니다.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내게 보이는 또 다른 아론 신권 소유자의 무리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들의 용모

에 귀한 것을 담지 못하며 친구나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쉽게 넘어 갑니다.

또 나는 세번째 무리에게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들은 더욱 곤란한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합당한 지도력이 미치기만 했다면 구제되었을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뻗혀 저들을 들어 올려 주었던들, 그리고 돌보아 주었던들 저들의 삶에 사랑과 순결한 마음과 위엄과 온갖 귀한 성품을 불어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만큼 나의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찌기 내가 알았던 가장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으며 내가 사도와 대관장단과 다른 관리 역원의 얼굴에서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읍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다섯 있습니다. 그중 둘은 선교사로 나가 있고, —하나는 갈프주에 다른 아이는 버지니아주 북 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소년단에서 이글 스카웃까지 된 아이들이고 저희들 말로는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조와 스코트 두 아이도



이글 스카웃인데 집에서 아주 고분고분하고 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한살짜리 로렌스는 우리집 막내 아들인데 꼭 물몬의 체격을 닮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체격이 크고 힘이 셉니다. 역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아들 다섯 뒤에 딸도 하나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질이며 우리 집에 특별히 파견된 천사라는 걸 압니다.

부라운 감독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지난 주는 내 생애에서 가장 긴 주였습니다만 지난 주 나는 교회를 통하여 내가 알게 된 수많은 가르침과 지워지지 않을 감화를 던져 주며 앞길을 인도해 준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주를 따르겠다는 대단한 열의를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으니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지도자를 통하여 부름을 주셨으니 황송할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어머니와 장모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혼자서 저희 온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일일이 지도해 주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준비해

주셨고 온갖 가르침과 소망을 마음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각 자기들 대로의 개성 대로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엘마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레이맨인 왕에게 하루 종일을 설파하였더니 마침내 왕이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론이 이 모든 일을 왕에게 설명하자 왕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해야 그대가 말하는 영생을 얻겠느냐?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 태어나 마음 가운데서 잔악한 뜻의 뿌리를 뽑고 성령을 받아 기쁨으로 충만하며, 마지막 날에 버림받지 않겠느냐? 하며 또 말하기를, 보라 이 큰 기쁨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두를 버릴 수 있으며 나의 왕국이라도 버리겠노라.

“아론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진정으로 이를 원하시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꼭 응답되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면 당신이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리이다.

“아론이 말을 마치자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친히 땅에 엎드려

힘있게 간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시여, 아론이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니,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거든 제게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알아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며 마지막 날에 구원받기 위해 저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말을 마치고 충격이 심하여 쓰러지니 마치 죽은 것 같더라.”(엘 22:15-18)

자기의 죄를 던져 버릴 아론 신권 소유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세상이 허가하는 모두를 던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있어 주면 저들의 재물이나 모두를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아론 신권 소유자로 하여금 위대한 부름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며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십년 동안 존경하는 예언자와 십이사도가 이곳으로 들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분들이 모두 영감을 받으신 존귀한 분들임을 압니다. 이분들은 모두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했습니다. 아멘. ㉔



토요일 오후 대회 1972. 4. 8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준비시킴으로써 인류에게 끼치는 유익

골든 비이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누군가가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교회와 교회를 하고 있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일단 교회의 회원이기는 하지만 접촉이 끊어진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고, 고집이 세고 철학적인 대답을 듣기 원하며 묘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형제애를 가져 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같이 형제애에 굽주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집에도 가고 조합이라던가 클럽 등등의 조직에 나가곤 합니다. 물론 이런 곳에서 다소 도움을 얻기는 하지만 이것이 형제애나 하나님의 신권의 유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세계 각처에서 모인 여러 가지 재능을 소유한 신권 소유자를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 서로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신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일을 하는가?

기에 합당한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밑 까부르듯하려고 너희를 칭구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신권 조직 정원회의 목적이라 한 수 있으니 서로 서로를 굳게 하고 서로가 발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지방의 교회 지도자가 나를 찾아 왔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이 이혼을 하려는데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온 그 남자는 결혼 생활이 심각하게 이미 빚나갔다고 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도저히 그의 수입으로 생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미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제는 조금도 더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함께 숙의했고 결국 그 형제가 속한 신권 정원회의 형제 세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그 형제와 함께 문제를 타결해 보도록 지시를 내리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세 사람은 변호사, 은행가, 계리사였습니다. 문제의 부부는 자기들의 문제를 위임받은 이 세 형제의 손에 맡기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쌓은 풍부한 지혜로 일에 임했습니다. 이들

은 채권자들에게 양해를 얻어 당분간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은 기울어 있었지만 노련한 형제들이 오직 신권의 형제를 돕겠다는 굳은 결의로 일해 갔습니다.

형클어졌던 일에는 질서가 확립되었고 가정에는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에는 새로운 안정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에는 표시하지 않았던 깊은 존경의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삼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채무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인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1) 바로 이것이 위대한 형제애의 정신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스러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약한 점을 자기의 강한 것으로 메꾸어 준다는 것 말입니다.

두째로,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은 필요한 경우 사람이 자기의 생활 주변을 청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고 선한 사람들과 유대를 나눔으로써 여러 해 동안 자기를 결박했던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된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몇년 전 히로시마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 사람과, 불과 짧은 시간에 약 85,000명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1945년 8월 6일의 사건을 기록한

전흔비 앞에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일본의 군인이었으며 그러한 그의 경력 때문에 미국인이면 누구든지 증오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이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우리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만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고 오직 술에만 의존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찾아 온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다음번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후 몇주가 지나고 나서 그는 침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개종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 의식을 갖게 해 주었고 나쁜 버릇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불어 넣어준 젊은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당시 그는 지부장단의 일원이요 활동적인 장로 정원회의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형제와 같은 경우가 수천 번 반복되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기의 삶을 개척하게 하는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세째, 교회의 활동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을 통하여 여러분을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봉사함으로써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식만큼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조직체가 있지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는 지도력을 양성시키는 가장 훌륭한 학교입니다. 나는 세상 여러 처소에서 우리의 젊은 선교사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그러나 주님의 전 재산입니다.” 참으로 기적적으로 이들 젊은이들은 봉사하는 가운데 그 능력에 있어서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이 진전되어야 한다면 그 일은 여러분이나 나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맡아 주어야 할 일과 직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빈 자리는 있는 대로 다 채워져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직책을 맡아 봉사함으로써 교회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아 강력하고 능력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군에 근무하다가 교회에 입교한 어떤 형제와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어떤 주일에 그는 신전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은 침례를 받았습니 다.

그후 사 오년이 지난 다음 나는 그를 장로 정원회의 회장으로 접견했습니다. 그는 이리 저리 방황하던 고아였던 그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 주었습니다. 삶에 지친 외로웠던 그때의 심정과 교육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던 캄캄하던 그때의 실정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성장이란 것이 그에게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교회에 왔고 하나님 직책을 맡아 일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점차적으로 큰 일을 맡아 보며

서 그의 능력은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아주 큰 임무를 맡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교회의 역원이요, 당당한 사회의 일꾼이요, 훌륭한 남편이요 모범적인 아버지요, 선량한 이웃인 것입니다.

로버트 부라우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한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은 어찌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것을 움켜 잡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실현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의 특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보다 높은 곳에 있는 목표에 도달하려는 요구를 갖도록 이끈다는 점입니다.

네째, 교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영역인 영적인 면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반석과 같은 신앙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때가 찬경문의 시대에 복음의 이유중의 하나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는”(교성 1:20)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고 또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동반할 수 있는 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벨사살 왕이 친구들을 모두 불러 향연을 베풀던 날 밤에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마술사와 온갖 요술쟁이들이 불러 나왔으나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고 이로써 왕은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단 5:11) 다니엘이 왕 앞에 불러 왔습니다. 그는 벽에 쓰인 글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만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활동 회원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면을 열어 줄 것이며 이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을 복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이 교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데 크게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 아내를 영원한 동반자로 대우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며 하나의 거룩하신 뜻을 펴는 일에 조력하며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이라는 생각을 철저히 강조하는 남편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가정의 수가 많을 때 그 나라의 국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곧 행위로 연결될 것이며 복음의 원리로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에는 상호 이해와 존경과

사랑과 예절과 감사가 존재할 것이며 가장인 아버지는 자기에게 부양권이 있는 가족을 아끼고 보호하고 먹이는 일을 크나큰 축복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에 개종해온 형제 한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나는 자식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규율을 어겨도 곧 육체적인 벌을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자녀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물론 저의 자식들이었습니다만 아울러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나는 자녀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으며 저들도 완전히 새로운 몸가짐으로 나를 대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규율이 있느냐고요?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종류가 좀 다르지요. 우리는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제제와 벌도 있기는 하지만 잘못 처리되던 예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말하자면 쌍방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형태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뒤를 이어요.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겁니다.”

끝으로 교회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연결해 줍니다.

이 세상에는 가족의 관계보다 더 성스럽고 만족스러우며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결혼식에서 늘 사용하는 “그대들이 죽을 때까지”

란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형태의 결혼이 있으므로 죽음으로 종결되는 그러한 작별과 이별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없는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반되는 논리의 주장이며 불합리한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를 위하여 성스러운 가족 관계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는 그가 택하신 열 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6:19)

바로 이 권세, 땅에서 뭇 때 하늘에서 매이는 이 권세가 오늘날 이 땅에 있습니다. 신전에서는 하나님의 신권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를 성약의 가족으로 매어 비록 사망이라 할지라도 이를 파괴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느 명사의 장례식에 가서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애도의 물결이 술렁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망인과 자녀들의 눈물 뒤로는 그 가정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던 분이 잠시 이별을 하고 재결합의 준비를 위해 먼저 가셨다는 확신이 보였으며 그 확신이 저들에게 안도와 평화를 허가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나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닌 실업계의 지도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네들

의 그 긍정적인 삶의 자세에서 감명 받은 바 큼니다. 당신은 위로하려 오셨고 통곡하려 오시지 않았으며—죽음을 원망하지 않고 생을 찬양하려 오셨습니다.”

교회는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사망이 오직 하나의 과정임을 확신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몹시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여러분의 가족임을 확신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여러 곳에 계신 우리의 형제 여러분, 그리고 방황하다가 떨어져 나갔거나 아직 우리 교회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께 한번 우리에게로 오실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살피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불어 넣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여러분의 가족임을 확신하게 해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을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우려는 훌륭한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전에는 알지 못하던 기쁨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약속합니다.

점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사랑스런 아이의 선물

여러 해 전에 나는 아주 영리한 베타살 짜리 아이를 알았지요. 이 아이가 종이 조각에 제가 알고 있는 몇마디를 적어 가지고 제가 아끼는 몇가지를 정성스럽게 종이에 싸서 들고는 그의 할머니께로 달려 갔어요. 그는 얼른 할머니 손에 선물을 전해드리고는 바로 돌아 왔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답니다.

그후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 집안 어른들이 할머니의 유물을 정리했답니다. 오래 사셨던 그 할머니에게는 놀랄만큼 값진 유물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옷상자 맨 밑 바닥에 꾹꾹 묶어둔 상자속에서 사람들은 “할머니가 좋아요”라고 어린 아이가 쓴 조그만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이 보따리 안에는 동전 세개가 나란히 들어 있었어요. 

메리 엠 엘스워드



빛의 향연

미리암 비스킨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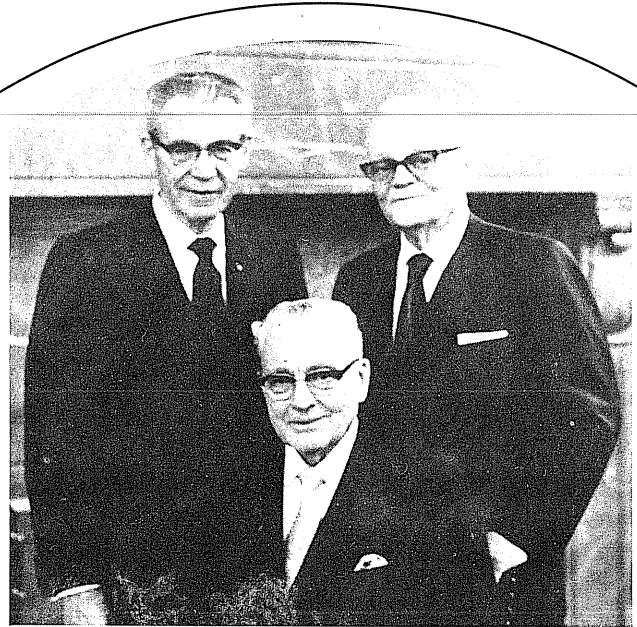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는 하누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경축일을 즐기
곤 했다.
하누카란 “빛의 향연”이란 뜻이다.
그리고 이 경축일은 겨울에 온다.
십이월 어느 날이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따사롭다.
그리고 아이들은 경축일에 무화과와 대추를 받아
먹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빛의 기적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

오래 오래 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신전을 파괴하려 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건했고 저들을
모두 쫓아 버렸다.
사람들은 신전을 깨끗하게 치웠다.
그러나 제단의 등불을 켜려고 했을 때
기름이 조그만 병으로 한병만 남은 것을 알았다.
“하루 밤도 다 못 켜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웅성
거렸다.
그러나 등불은 밝혀졌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를 드렸다.
등불은 밝게 났다...하루 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드레를 그렇게 밝게 났다.
“주님의 표적이지다”하고 사람들이 떠들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자유를 갖는다
는 표적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들으신 이야기이며
오늘날 모든 유대 어린이들이 들은 이야기일 것이
다.....

겨울이 가까이 왔으니 하누카도 머지 않으리. 關

로라드 월킨슨 역

온나라의 어린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친구가 친구에게

대관장단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존귀한 영혼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의 금관에 장식된 빛나는 보석이며 꽃다운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아 그 탄생을 축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을 떠나 이곳에 온지가 불과 오래지 않습니다.

약 이천여년 전에 목동들이 밤에 베들레헴 근처 들에서 양을 돌보다가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동들은 밤길을 달려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이 아기는 차차 자라면서 영적으로 강하며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이런 아이들을 가깝게 하셨습니다.

그는 순결하고 거룩한 모든 사람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으며 어린 아이들에게서 그 순결과 거룩함을 찾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늘 왕국은 그러한 자의 것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심의 뜻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돌아 가려면 죄없이 깨끗해야 하며 어린 아이처럼 성실하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신의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을 가깝게 모으셨을 때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온화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서 안락과 안전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이었고—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저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풍요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빌어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 여러분이 복음의 참 가치를 알고 이해하며 여러분이 예수가 사신대로 따라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물론 경전을 읽어야 하고 교회의 공과 반에도 참석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배우고 훌륭하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사랑의 모범을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생기거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그분이 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대로 행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간구하고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주님의 가호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가깝게 불러 모으셨던 어린 아이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사랑과 위안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을 가장 훌륭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圖

겨울 양식



매리 프랫 패리시 저
버지니아 서젠트 역

토미와 벅시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나무를 떠났을 때 그들은 한해 겨울을 지낼만한 충분한 양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그 식량으로 겨울을 지내고 먼 서쪽 계곡에 도착하여 뿌린 씨의 수확을 거둘 때까지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윈터 쿼터스에 머물어야 했고 다음 봄까지는 그곳에 머물지 않으면 안되었다.

토미 어머니는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은 엘리야와 그의 오빠를 불러 남자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 없는 동안 토미와 벅시와 함께 와서 살도록 했다. 이미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다.

토미는 이 문제를 여러번 엘리야와 상의했다. “우리에게 돈만 있다면 세인트 요셉으로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구할 수 있을텐데” 토미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세인트 요셉은 이백 리나 된다. 우리 마차를 가져가면 이주 이내에 다녀올 수 있을거다. 돈을 마련할 방도만 있었으면!”

하루는 토미가 팔리 피이 프랫이 천막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삼주 전에 프랫 형제, 존 테일러, 그리고 올슨 하이드가 윈터 쿼터스를 떠나 영

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났던 것이다. 왜 그가 홀로 천막으로 돌아오고 있을까? 토미는 정말 궁금했다.

프랫 형제는 캠프 서기였던 윌리엄 클레이튼의 천막이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 왔다. 토미는 그가 천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 보고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얼마 후에 클레이튼 형제가 토미를 불렀다. “자 여기 너희 어머님과 엘리야에게로 가는 편지가 있다. 어머니께 가서 지금 물론 대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프랫 형제님이 돌아오셨다고 전해다오. 그는 레빈워드 요새에서 사람들을 만나 자청해서 윈터 쿼터스로 돌아 오신거다. 영국으로 가기 전에 돈을 전해 주시려고 말이다.”

토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식구들을 모두 안으로 불러 들였다. “여기 너희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가 있다. 엘리야” 토미가 말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께 온 거예요.”

토미와 벅시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만세!” 편지 내용에 돈을 보내니 서기에게 가서 받아 음식을 사라는 대목에 이르러 토미는 소리를 질렀다.

“우리 아버지는 이곳으로 돈을 보내니 쓰시랍니다. 아주머니” 엘리야가 말했다. “음식을 사고 좀 남으면 엘리사와 저의 신을 좀 샀으면 해요.”

토미의 어머니는 앞으로 창창한 추운 겨울 날씨를 생각했다. “충분하겠지” 토미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토미는 어떻게 되든지 엘리사와 엘리야의 구두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끌어 안으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줄 알게 되었으니 비록 그분이 멀리 계시기는 하지만 얼마나 행복하냐?”

토미는 세인트 요셉으로 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세인트 요셉으로 떠나야 할까요?” 토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누군가 함께 갈 수 있다면 좋겠다만” 어머니가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는 우리들더러 멀리 여행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지난 주에 물리 형제가 세인트 요셉으로 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토미가 말했다. “우리하고 함께 가자고 할까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저녁을 먹고 그 댁에 가서 알아 보도록 하자.”

물리 형제는 기쁘게 같이 가기로 응락했다. 이틀 후에 토미가 마차 한 대를 물고 엘리야가 한 대를 물고 가족과 함께 윈터 쿼터스를 뒤로 물리 형제와 그의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세인트 요셉에 가서 맨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를 위한 구두를 사려고 했다. 그러다가 마차로 가득 옥수수과 밀과 감자를 사서 실었다.

벧시가 막 상점으로 운반해 온 꿀을 쳐다 보고 있었다. 그러나 꿀을 살만한 돈은 남아 있지 않았다.

“걱정하지마” 엘리야가 말했다. “나부에서 들 꿀을 거둔 일이 있거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집을 몇 개 찾아낼 수 있을거야.”

그 이튿날 세인트 요셉 근교에서 토미와 엘리야는 근처를 돌아 다니다가 꿀벌 통을 발견했다. 꿀이 가득한 벌집이었다. 그러나 손에 그릇을 갖고 가지 않았던 이들은 근처에서 주운 나무 그릇에 꿀을 조금 가져와 저녁 식사에 썼다. 그 다음에 그들은 큰 주전자로 돌이나 꿀을 찼다.

꿀을 주전자에 담고 있을 때 그들은 등 뒤에서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다 보니 역시 꿀통을 찾아 온 커다란 곰이었다. 그들은 주전자를 땅에 떨어뜨리고 구원을 청하며 뒤돌아 뛰었다. 급히 뛰다가 토미는 통나무에 걸려 넘어졌다. 엘리야가 토미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뒤에 곰이 따라 오는 것을 보았다. “통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가. 토미!” 그는 소리를 질렀다.

물리 형제가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바람에 장충을 들고 뛰어 나와 곰을 향해 충을 겨누고는 방아쇠를 당겼다. 곰은 통나무 옆에 죽어 넘어졌다.

“감사합니다. 물리 형제님” 아이들은 함께 감사의 인사를 했다. 토미는 혼자서는 여행하지 않도록 지시하신 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했다.

토미의 귀에는 어머니 말씀이 자꾸만 반복되어 울렸다. “아버지가 멀리 계시지만 너희를 위해 마음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냐.”





리코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날씨는 브라질의 십 이월답게 따듯하였다. 리오 데 자네이로의 크리스마스는 한 여름에 온다.

리코와 아버지는 시내로 일거리를 찾아 가고 있었다. 이들은 리코의 자매들이 사각형 물통을 머리에 이고 언덕을 오르고 있는 옆을 지나쳐 앞으로 나갔다. 소녀 아이들은 맨발로 꼬부라진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했다. 얼른 보면 아무렇게나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지만 집에 다 가도록 물 한 방울 흘리는 법이 없다.

이들의 집은 파벨라에서 흔히 보는 그런 집으로 언덕에 높이 걸려 있어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거기 리코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당신을 두고 떠나고 싶진 않소.” 리코의 아버지가 한 말이다. “더구나 어린 패키나는 아픈데 말이오. 그렇지만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엔 아무 것도

없지 않소.”

그렇게 해서 이들은 길을 떠난 것이다.

이들은 여러 시간 쏘다녔지만 멋지게 생겼을 뿐 아니라 건강하고 힘센 리코의 아버지를 아무도 채용하려 하지 않았다.

“아마 내일 쯤……”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길 건너 편에서는 늙은 노파와 어린 소년이 크리스마스용 과자와 캔디를 팔고 있었다. 여기 저기 들창에는 오렌지색, 초록색 장식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어떤 가게 진열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다. 리코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그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나무는 리오 데 자네이로 아니 전 브라질에는 없을 듯한, 리코가 전에는 한번도 보지 못한 그런 나무였다. 그 나무 가지 가지에서 찬란한 불빛이 반짝거렸다. 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어떤 장식은 불

빛을 받아 눈송이 같이 보이기도 했다. 브라질의 눈은 칠월에만 오는데 그것도 높은 산 꼭대기에 잠깐 머물 뿐이다.

“자 가자.” 리코의 아버지도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눈길이 갔지만 마침내 리코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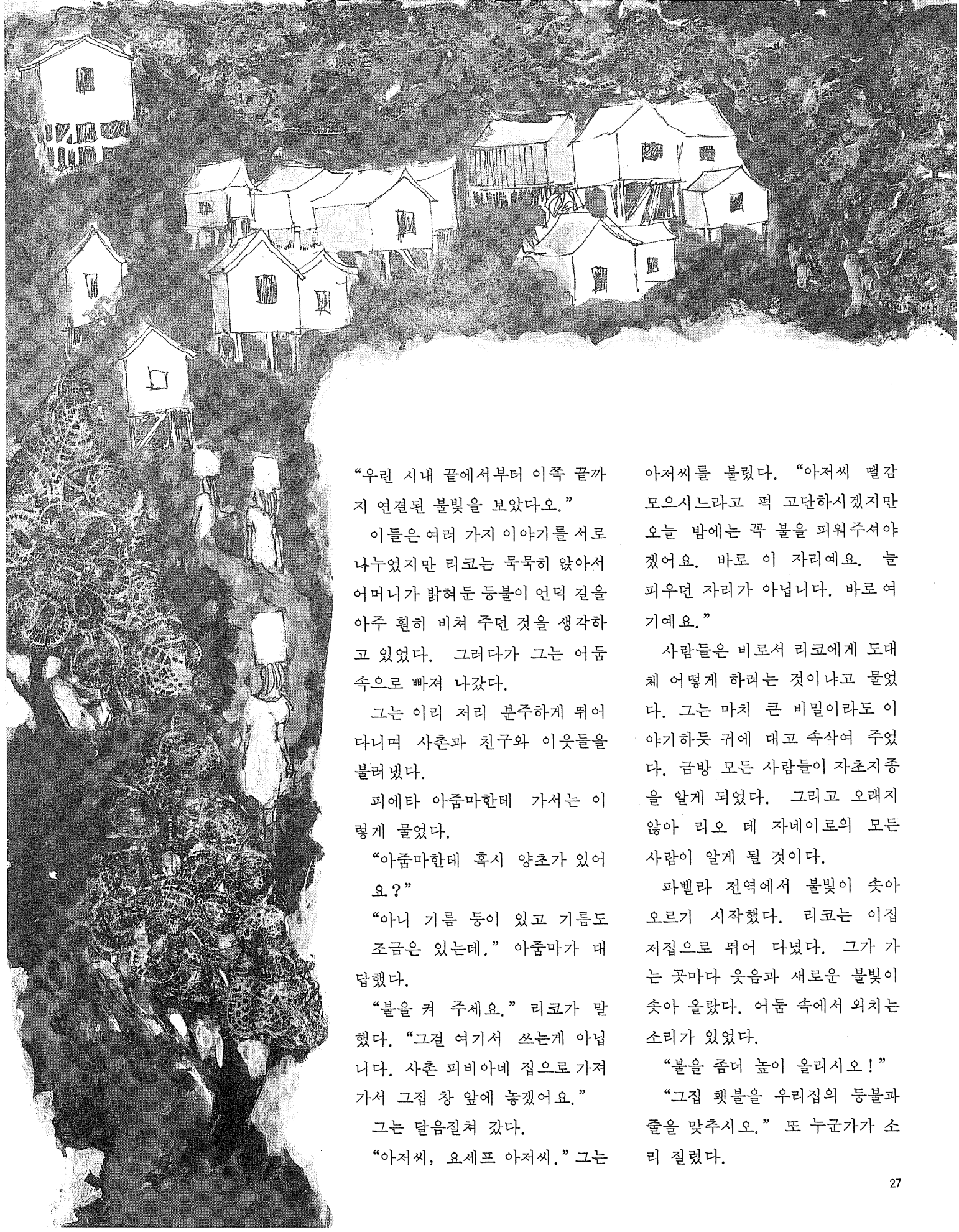
이들이 파벨라를 향하여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린 뒤였다.

이들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흘러 나오는 불빛을 좇아 발걸음을 옮겼다. 불빛은 광채나는 방안의 벽지에 반사되어 창문으로 새어나왔다. 다른 집에서 새어나오는 여러 가지 불빛이 언덕 길에 여러 가지 모양의 무늬를 만들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패키나를 안고 앉아 있었다.

“열은 내렸어요.” 어머니는 리코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쨌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되었군요.” “반가운 소리요.” 리코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린 시내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연결된 불빛을 보았어요.”

이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지만 리코는 묵묵히 앉아서 어머니가 밝혀둔 등불이 언덕 길을 아주 흰히 비쳐 주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어둠 속으로 빠져 나갔다.

그는 이리 저리 분주하게 뛰어 다니며 사촌과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냈다.

피에타 아줌마한테 가서는 이렇게 물었다.

“아줌마한테 혹시 양초가 있어요?”

“아니 기름 등이 있고 기름도 조금은 있는데.” 아줌마가 대답했다.

“불을 켜 주세요.” 리코가 말했다. “그걸 여기서 쓰는데 아쉽습니다. 사촌 피비아네 집으로 가져가서 그집 창 앞에 놓겠어요.”

그는 달음질쳐 갔다.

“아저씨, 요세프 아저씨.” 그는

아저씨를 불렀다. “아저씨 멜감 모으시느라고 펍 고단하시겠지만 오늘 밤에는 꼭 불을 피워주셔야겠어요. 바로 이 자리예요. 늘 피우던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예요.”

사람들은 비로서 리코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마치 큰 비밀이라도 이야기하듯 귀에 대고 속삭여 주었다. 금방 모든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리오 데 자네이로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파벨라 전역에서 불빛이 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리코는 이집 저집으로 뛰어 다녔다. 그가 가는 곳마다 웃음과 새로운 불빛이 솟아 올랐다. 어둠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불을 좀더 높이 올리시오!”

“그집 햇불을 우리집의 등불과 줄을 맞추시오.” 또 누군가가 소리 질렀다.



리코의
크리스마스

이 소식을 제일 늦게 전달 받은 사람은 베네디타 할머니였다. 그녀는 파벨라에서 제일 지대가 낮은 곳에 살았다. 참나무로 지어진 그의 집은 언덕에 붙여 지어진 제비집 같았다. 리코는 그에게 불을 켜라고 전하고는 한 달음에 시내로 달려갔다.

그는 그의 뒤를 부지런히 쫓아오는 아버지를 힐끗 돌아 보았다. 그는 복잡한 거리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마을 쪽을 돌아다 보지 않았다. 밤 예배를 끝낸 교회 신자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드디어 파벨라 쪽을 올려다 보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다. 불의 트리다. 저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하늘 높이 치솟은 도시의 휘황 찬란한 트리로서

피에타 아주머니 등과 마마 베네디타의 등 그리고 모든 파벨라의 등이 밝혀진 것이다. 리코와 이웃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 놓 크리스마스 트리의 등이었다.

리코와 리코의 아버지가 다시 언덕을 오르고 있을 때는 등불은 하나씩 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파벨라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경사스러운 크리스마스에도 등불을 계속해서 켜만 한 충분한 기름이 없었다.

반쯤 언덕엘 올라 이들은 리오데 자네이로를 뒤돌아 보았다. 저 멀리 또 다른 불빛의 무리가 보였다.

“배가 돌아오고 있다.” 아버지가 숨을 가쁘게 쉬며 이야기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긴 하지만 그래도 짐 풀 인부가 필요한거다. 내가 가서 맨 앞줄에 설테다.”

그는 리코의 어깨를 두드렸

다.

“너의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었더라면 저 배가 들어오는 걸 전혀 몰랐겠구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걸음에 부두로 달려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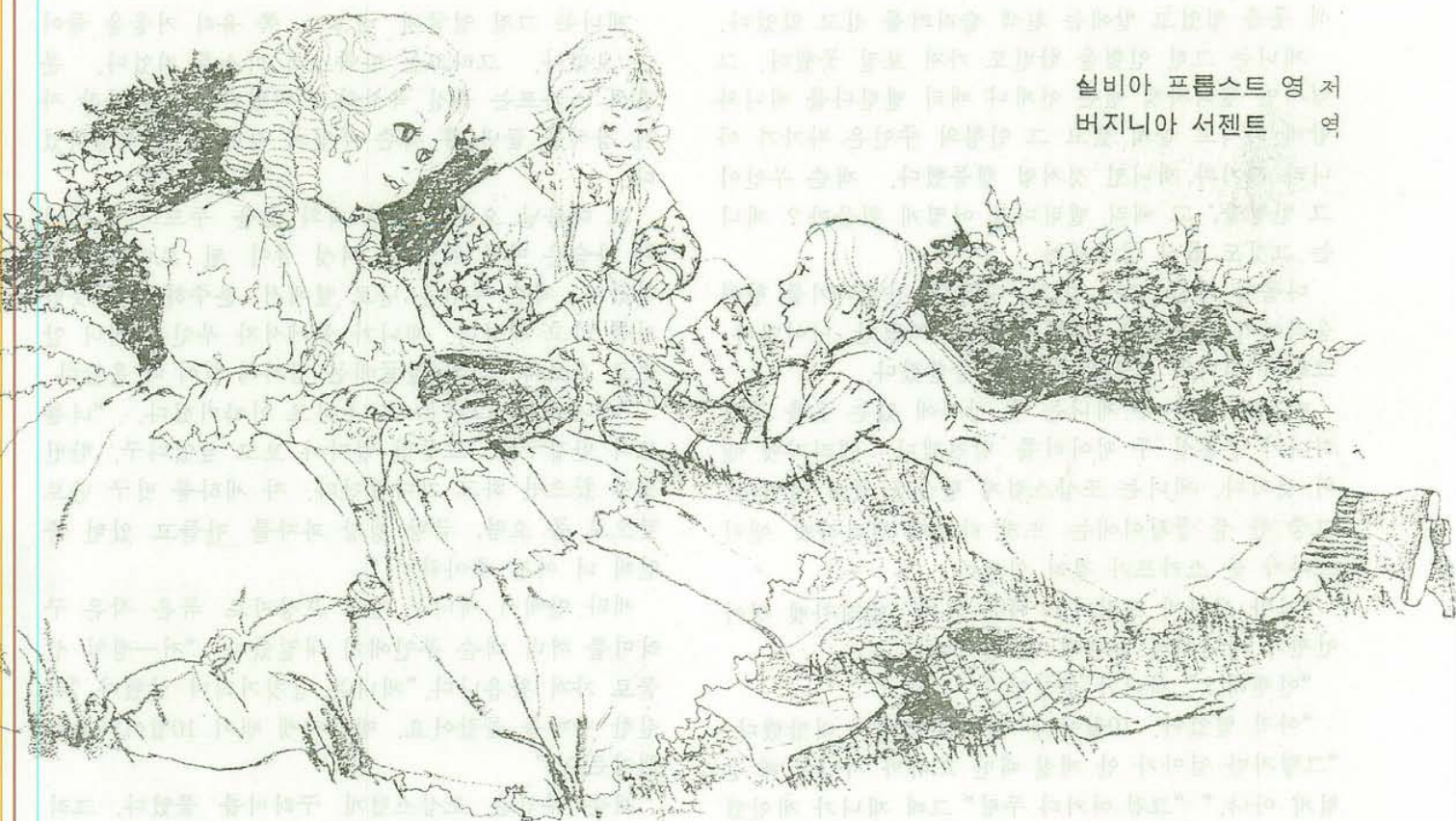
리코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한 어둠의 장막과 고요만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리코는 잠자리에 쭉그리고 누웠다. 크리스마스는 다시 모두에게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크리스마스 이브만은 못한 것이다.

그는 잠에 빠져 들면서 하늘 높이 치솟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시 생각했다.

“나는 아주 부자야.” 그는 생각했다. “모든 시내의 형제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사할만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

제니의 특별 성탄

실비아 프롭스트 영 저
버지니아 서젠트 역



포장 마차 뒤에 선 채로 제니는 아득한 들판 저 건너 편에 방금 새 흙이 덮힌 한 곳을 바라 보았다. 다시 눈물이 솟구치며 금방 숨을 막아버릴 것 같은 무엇이 숨을 죄어 오는 것 같음을 느꼈다. 지금 금방 만들어진 그 무덤에는 제니의 사랑하는 친구 엘리자벳 앤이 묻혀 있는 것이다.

잭슨가가 나부로 이사를 와서 이웃이 된 이래 제니와 엘리자벳 앤은 친한 친구가 되었고 함께 소꿉장난도 하고 강뚝을 따라 피크닉도 가고 온갖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살았으나 엘리자벳 앤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제니는 포장 마차에 기대어 선 채로 불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감독께서 부활에 관

하여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엘리자벳 앤을 소생시킬 힘은 없었던 것이다. 제니는 이미 사망의 아픔을 알고 있는 터였다. 지난 여름 제니의 엄마와 새로 태어난 남동생이 함께 나부에 묻히지 않았는가!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든 제니는 단 하나의 딸을 잃은 잭슨씨와 그 부인이 엘리자벳 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엘리자벳 앤의 동생 토미도 그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매리 멜린다도 그녀를 생각할 것이다.

매리 멜린다는 엘리자벳 앤의 인형이다. 그 인형은 멋진 금발을 한 아주 특별한 인형이었던 것이다. 푸른 눈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며 얼굴과 손과 팔은 예쁜 사기로 되었고 흰 베이스가 달린 핑크

색 옷을 입었고 발에는 흰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제니는 그런 인형을 한번도 가져 보질 못했다. 그렇지만 엘리자벳 앤은 언제나 매리 멜린다를 제니와 함께 가지고 놀게 했고 그 인형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와 제니인 것처럼 행동했다. 잭슨 부인이 그 인형을, 그 매리 멜린다를 어떻게 했을까? 제니는 그것도 몹시 궁금했다.

다음날 아침 포장 마차 대열은 산골짜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햇빛이 밝은 쾌청한 날이었다. 그러나 제니의 마음은 어둡고 쓸쓸했다.

며칠이 지난 후 제니는 옷 상자에 있는 옷을 정리하다가 분홍색 두 덩어리를 발견했다. 엘리자벳 앤의 것이다. 제니는 조심스럽게 털실을 들어 올렸다. 그중 한 실 뭉텅이에는 뜨게 바늘과 엘리자벳 앤이 뜨다가 둔 스카프가 걸려 있었다.

“엄마 생일에 드릴려고 짜는 거다” 엘리자벳 앤이 언젠가 제니에게 설명해 준 말이다.

“언젠데?” 제니가 물었다.

“아직 멀었어. 10월이야” 엘리자벳 앤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엄마가 안 계실 때만 뜨니까 시간이 꽤 걸릴게 아냐.” “그럼 여기다 두렴” 그때 제니가 제안했던 거다. “그럼 언제든지 네가 원할 때 와서 일할 수 있잖어.”

“아 그렇구나 제니. 참 좋은 생각이다.” 엘리자벳 앤이 즐거운 표정으로 동의 했었다.

제니는 다시 그 실 뭉텅이와 스카프를 살펴 보았다. 간단했다. 바로 한코, 뒤집어서 한코, 그렇게 뜨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할테다” 제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엘리자벳 앤의 엄마를 위해서 내가 대신 뜰거다.” 그후로 제니는 틈만 생기면 스카프를 땀다. 그동안에 포장 마차 대열은 골짜기에 도착하여 제니도 몹시 바빠졌다. 그러나 제니는 10월 초에 뜨게질을 끝냈다. 가장 자리의 장식을 달면 완성이다.

제니의 아빠는 스카프를 보시자마자 칭찬해 주셨다. “야 이진 아주 전문가 솜씨다.”

제니는 그걸 얼굴에 대고는 쪽 유리 거울을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는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다. 분홍색 스카프는 폭신 폭신하고 예뻐다. 금방 가장자리 장식을 끝낸 후 잭슨 부인에게 갖다 드릴 작정이었다.

그 다음날 오후 잭슨씨 댁의 문을 두드리는 제니의 가슴은 마구 뛰었다. 여섯 살이 된 토미가 문을 열었다. 잭슨 부인은 난로 옆에서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다. 제니가 들어서자 부인은 제니 앞으로 오셨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빛이 떠 올랐다.

“제니야!” 그녀는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너를 보니 반갑구나.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다구. 한번 찾아 왔으면 하고 기다렸단다. 자 세타를 벗구 난로 옆으로 좀 오렴, 금방 생강 과자를 만들고 있던 중인데 너 이걸 좋아하지.”

세타 안에서 제니는 갈색 포장지로 묶은 작은 꾸러미를 꺼내 잭슨 부인에게 내밀었다. “저—생일 선물로 가져 왔습니다.” 제니는 멈칫거리며 말했다. “확실한 날짜를 몰랐어요. 엘리자벳 앤이 10월이라고만 했거든요.”

잭슨 부인은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풀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분홍 스카프를 손에 든 그녀는 한 동안 말이 없었다.

“제니야, 참 아름답구나” 마침내 그녀는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사실은 이거 제가 드리는게 아닙니다.” 제니는 그 스카프를 시작한 것이 엘리자벳 앤이었다는 것으로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잭슨 부인은 스카프를 얼굴에 대어 보고는 “평생을 두고 아꼈거다”라고 말을 꺼냈다 “이진 네가 주는 선물이기도 한 것이다. 이걸 뜨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데 왜 이걸 완성했지?”

“그건 제가 엘리자벳 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주머니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제니의 대답은 간단했다.

잭슨 부인은 팔을 벌려 제니를 힘껏 가슴에 안았



다.

아빠와 동생들에게 줄 과자 봉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니는 엘리자벳 앤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그전처럼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세월은 정말 빨리 지났다. 학교에 다니라 아빠를 도우라 제니는 정말 바빴다. 정말 제니가 정신을 차릴 수도 없는 사이에 땅은 온통 눈으로 덮히게 되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 왔다. 그녀는 아빠의 양말과 동생들의 장갑을 땀다.

크리스마스 전날 아침 아빠는 산 꼭대기로 올라 가서 예쁜 전나무를 하나 가져 오셨다. 제니는 과자도 굽고 옥수수도 튀겼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전나무 가지를 예쁘게 쳐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웃이 모두 물려와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한 온갖 노력과 도움을 쏟아 주었다. 집꾼들이 방금 구워낸 누룽지 누룽지한 먹음직스러운 빵을 가져 왔고 월킨슨 할머니는 꿀 과자를 가져 왔으며 잭슨 부인은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한 상자를 하나 가져 오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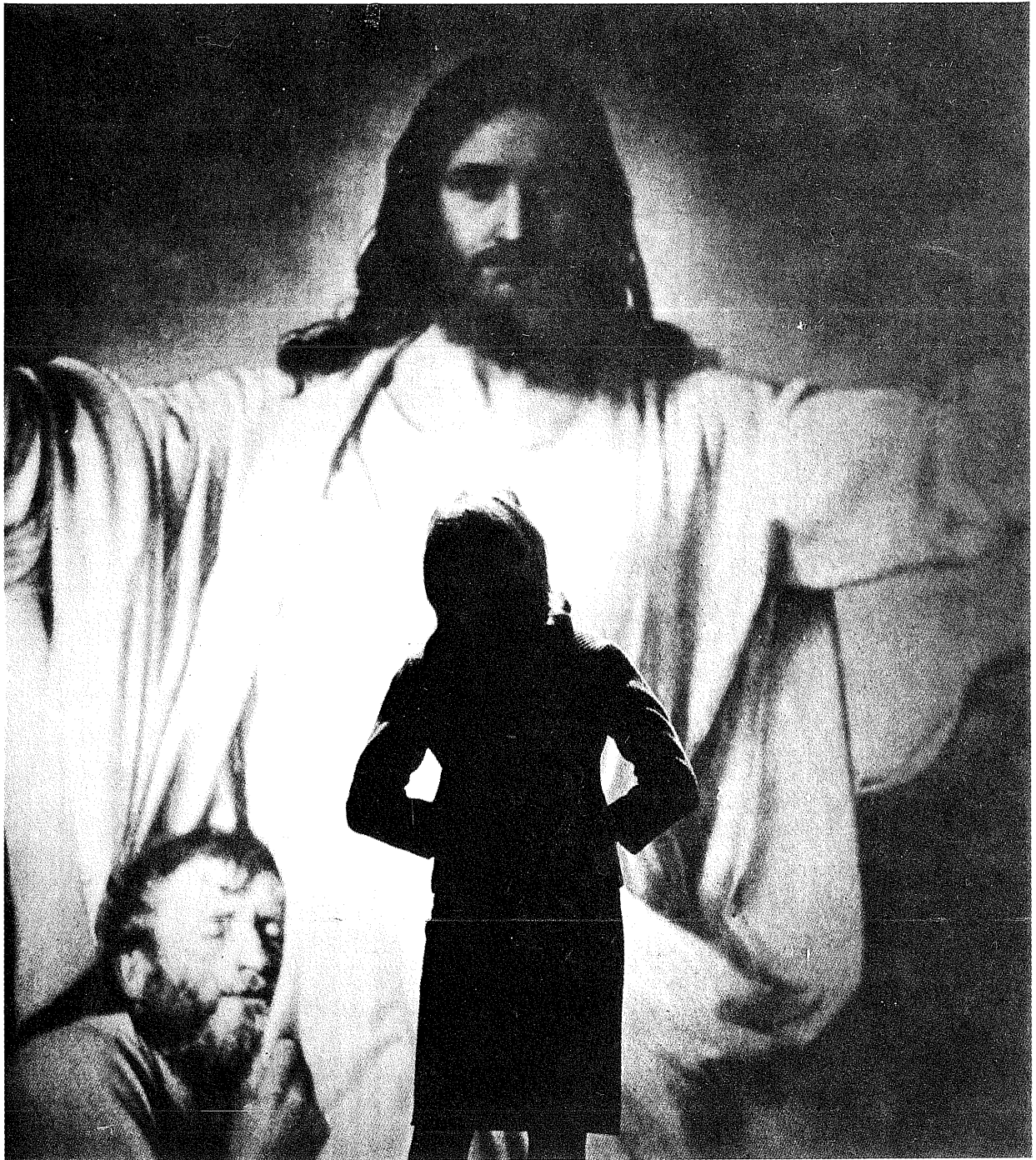
“너한테 주는 거다. 그 속에 동생들의 것도 들어 있어” 제니에게 속삭여 주었다.

제니는 당장에 열어 보려고 했지만 크리스마스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제니는 아주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지만 크리스마스의 아침은 밝았다.

잠옷 바람으로 난로 옆에 서서 제니는 선물 상자를 열었다. 제니의 동생들을 위한 작은 인형이 나왔다. 그리고 분홍색 옷을 입은 매리 멜린다가 거기 제니의 눈앞에 누워 있었다. 매리 멜린다! — 그 예쁜 인형 같잖다 땀다 하는 눈을 가진 금발의 인형!

제니는 아주 정성스럽게 엘리자벳 앤의 것이던 그 인형을 들어 올렸다. 그 인형의 팔에는 작은 종이가 매달려 있었고 거기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그렇게 큰 사랑을 준 제니에게.”

가장 값진 선물



청춘은 인생의 황금기다.

소년기를 벗어나 방황하던 미숙함의 때를 벗고 원숙한 청년의 영역으로 첫발을 내딛으면서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것이다.

저들이 볼 때에, 미래로 향하는 길은 불과 숨 한번 들이 쉴 때에 도달한 것같은 것이다.

이 지구 상에 존재하는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28세 미만인 것이다. 정부의 많은 지도자, 학계의 역군, 산업계의 간부들이 삼십대의 장년인 것이다.

소위 이 젊은 어른들은 그들에게 부과되는, 점점 막중해지는 책임을 기겁케 짊어지며 이들의 영향으로 하여 세계의 차원은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과연 저들은 어떠한 세계를 건립할 것인가?

물론 인간으로서 저들은 저들의 선배들처럼 실수를 범하기도 할 것이다. 과연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들이 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술의 혜택을 입는 것은 사실이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선배들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현명한 것인가? 지혜만이 진정한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인가?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오늘날의 문명이 과연 셰익스피어의 재능보다 더한 재능을 배출시켰는가? 과연 우리는 현대인 가운데서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를 발견하는가? 오늘날의 그 어느 누구의 필치가 이사야나 바울의 그것을 필적하겠는가?

기계 문명이 베니스의 상인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근대의 교육 제도나 사상이 성경을 집필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는 과거로서의 위대성을 가지며 우리는 그 위에 발을 딛고 선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위대성을 형성한다. 그것은 언제나 평범한 근원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곧 그 근원이 하나님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하나님을 인정했다. 셰익스피어의 가장 정화된 글귀에는 경전의 가르침이 반영된다. 컬럼버스도 기도를 했고 워싱턴이나, 링컨이나 처어칠은 성경에서 가르침을 구하였다. 다윈은 신 앞에 겸허했고 현대의 우주 과학의 천재 본 부라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다면 젊은 어른 층이 이보다 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세계가 안전을 유지하려면 매사를 가장 안전한 기초위에 쌓아 올려야 할 것이니—오직 전능 주에의 귀의가 있을 뿐이다.

여러 세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노력을 시도해 왔다. 때로는 한 나라가 그리고 어떤 때는 한 개인이 이러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비슷한 결말에 부딪힌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안을 거역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한 목적을 가지고 향상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므로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락해 가며 향상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가는 것이니 결국은 퇴보해 가고 마는 것이다.

이를 원하는 자가 있는가? 만군이 이렇게 시도했다가 하나같이 그 값을 아파게 지불하였다. 너무도 비싸고—고통스럽고 험한 삶의 길이며 비록 그것이 외면으로는 찬란하고 다소 매력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는 한 가지이다.

로웰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죄는 죄로서 이미 그 값을 우리에게 치루게 한다.”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 하겠다. 죄를 깨우치는 과정은 모두 아픈 마음을 동반한다.

이제 몇주 후면 성탄절을 축하하게 된다. 이 즐거운 성탄을 맞아 단순한 관습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짓지 아니하시고는 짓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시편 127:1)라 하신 말씀을 어쩔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이다. (바울은 심고 아폴로로 물을 주듯이) 그러나 스스로의 힘만을 믿고 일할 때 우리는 참으로 쌓아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사 교락을 주재하시는 모든 일에 그 증거가 보인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운명의 모양을 결정하시는 이가 따로 계신데 어찌 우리가 간섭하랴”고 하였다. 참으로 주시는 이도 그분이시고 취하여 버리시는 이도 그분이시다.

성탄을 맞아 우리 다 함께 우리들 스스로에게 가장 값진 선물인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선사하기로 하자. 예수는 영으로나 육으로나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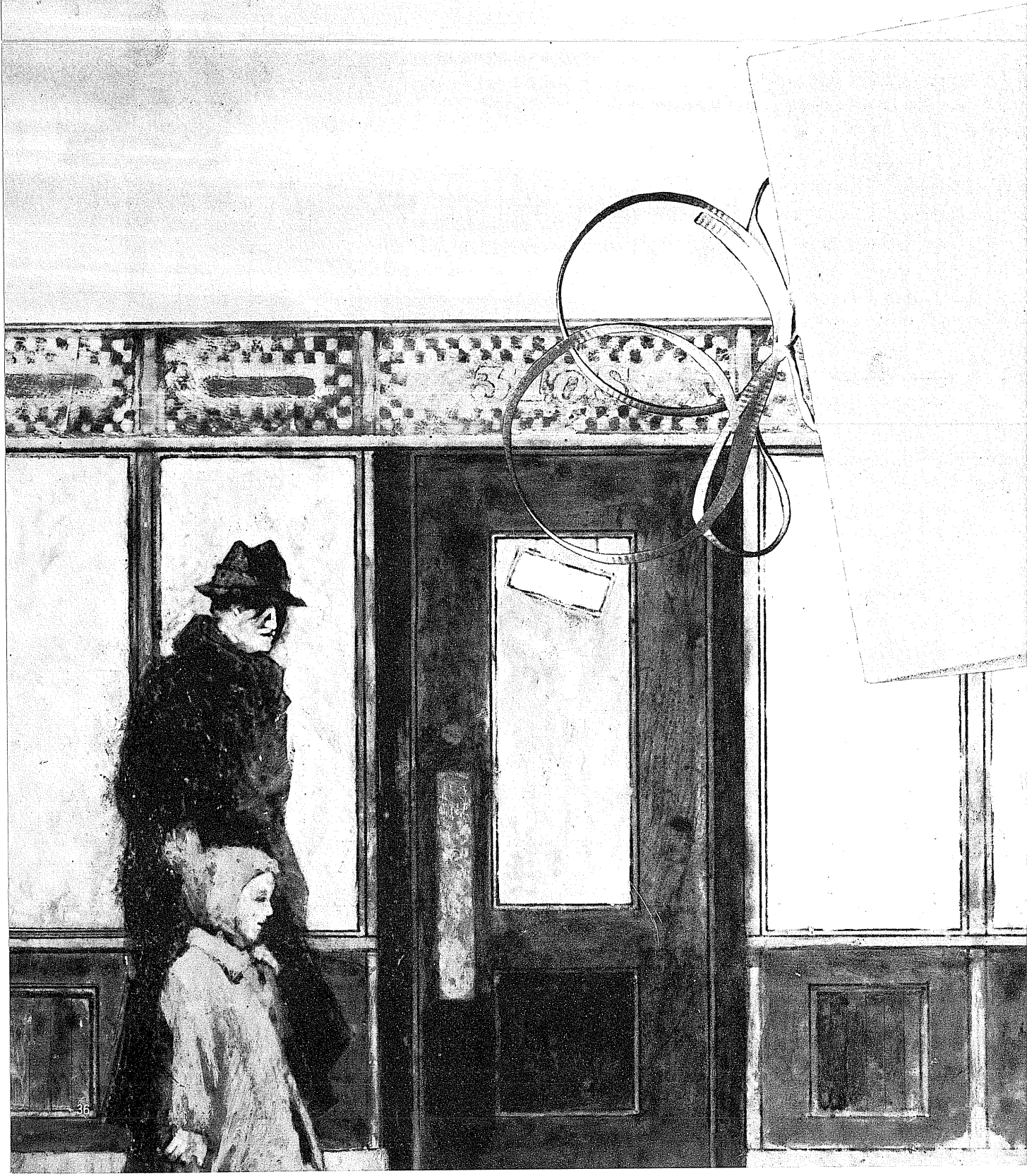
세상이 그를 거부하고 박해할지라도 그분은 이 세상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지혜가 있다는 자들이 그를 경멸하려 하나 인간의 지혜는 패망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뜻만이 중대한 과업을 지속하게 하신다.

베드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을 때 그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중대한 의미를 전한 것이다.

창조주로서 예수는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는 폭풍우를 멎게 하시기도 하며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늘의 창문을 열고 우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 주시기도 하신다. 주는 풍성한 삶이시다. 주의 길은 번영과 화평의 길로 연결된다. 우리에게 이를 받아들일 지혜가 있는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다같이 계신 그대로의 주를 새롭게 맞고 그의 이름을 믿어 육으로 영으로 그리고 부로도 구원을 얻도록 하자. ㉠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는 기억하고 기억하노라

마조리 비이 테일러

는 것만을 골라서 참을성있게 책을 만
들어 갔습니다. 나는 인형의 머리 리
본을 만드는 천으로 책을 묶고 헌 책
에서 예쁜 그림을 잘라 내어 풀로 붙
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책 열 권
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
루 종일 돌아 다녀야 책 열 권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 열
권은 채 한 시간도 다 되기 전에 다
팔렸습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
와 돈을 모두 나의 옷 설합 속에 넣
고는 아빠가 나를 데리고 상점에 가
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정말 나를 그토록 오래 기
다리게 하셨습니다. 꽤청한 십 이월의
어느 아침, 조반을 막 끝내신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아빠와 함께 성탄절을 위한 쇼핑을 하
기로 하자. 너 준비는 되었겠지?”

그때 이미 나는 내가 사야 할 물건
의 목록표를 만들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아빠께 대
답을 하고는 즉시 돈과 목록표를 가
지러 뒷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눈에 덮힌 거리
를 걸어 나갔습니다. 내가 세 발자욱
을 옮겨야 겨우 아빠의 한 걸음을 따
라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나
이의 소녀가 처음으로 맞는 가슴 두
근거리의 외출 길을 미끄러지며 따라
가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아빠한테 이
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점에 도착하자 아빠는 이렇
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고 싶은
것은 다 있을거다.”

“그렇지만 아빠 이 상점에서는 기
껏해야 점이나 사탕 밖에 더 사나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은 없지 않
아요?”

“넌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줄 특별
한 선물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런 것을 준비할만한 돈이 없잖아” 아
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점에는
네가 살만한 것은 다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눈에는 실
망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던 것입니
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게 줄 선물을 살만한 돈은 있어야 하
는게 아닙니까?

“네가 그 작고 예쁜책을 만들 때
이미 너는 사람들에게 너의 사랑을 전
한거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가 살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사는
거다. 그래서 너의 사랑으로 포장을
하고 크리스마스의 리본을 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되는
거란다.”

사랑이란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
는 그 어느 선물 보다는 더욱 값진 것
이라는 진리를 나의 작은 가슴에 아
로 새겨 주신 우리 아빠께 축복을 드
립니다.

“자 내가 이야기 한 것을 잘 기억 하
겠니, 애야?”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나는 아빠의 얼굴을 쳐다 보며 얼
른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기억하겠어요”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늘 —언제나 기억하겠
습니다.”

내가 여섯 살의 어린 소녀였을 때
였습니다. 추수 감사절이 막 지나고
나서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크리스마
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훌륭
한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의 꿈은 돈이
없으면 실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얼
마 후에 아주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
니다: “그래 엄마의 특별 요리책을 복
사해서 예쁜 ‘과자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만드는 거다. 그걸 거리로 들고
나가 팔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물을 살만한 돈을 장만하는 거다.”

매일 밤 나는 나의 일을 끝내고는
급히 내 방으로 돌아가 제일 좋아하

마 리 아

매리 프랫 패리시

그리스도가 나시기 일백 이십년 전에 베냐민 왕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나 장차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다도 475년이나 앞서서 니파이는 시현을 통하여 이 마리아를 보았으며 저를 가리켜 “모든 처녀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라고 하였다. 이보다도 약 100여년 전 이사야는 마리아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독 그녀의 아들에 관한 예언만이 그 개인의 신분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반대로 마리아의 지상 생활에 관하여서는 알려진 바가 지극히 적다. 과연 그녀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그리고 언제 탄생했는지, 또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였는지 전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젊은 처녀로 그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는 것과 요셉의 아내였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때로는 유아 시절에 약혼을 할만큼 어린 나이에 정혼을 해야 했고 그런 상태로 결혼하기에 합당한 나이에 이르도록 기다려야 했던 만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때도 마리아는 어린 처녀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녀를 가리켜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복받은 자라고 하며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

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눅 1:30~32)

이러한 메시지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대답하였다. (눅 1:34)

이에 천사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이에 마리아의 얼굴에 당황의 빛이 역력했음이 확실했던 것 같다. 이를 본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계속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눅 1:36) 이리하여 마침내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라고 답하였다.

이와같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도 못한 가운데 어머니가 되었으므로 정혼의 약속이 원만하게 정리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이해와 믿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여전에서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로 가서 천사가 이야기한 모두를 털어 놓고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잘 수궁이 가질 않는다. 경전에 보면 요셉의 의심이 대단했으며 이로 인해서 마리아는 “서둘러서” 자기의 이야기

에 이해와 긍정으로 귀기울여 주리라고 믿는 사촌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멀고 먼 유대 땅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의 사촌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태한 처지가 아니었는가?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달 동안 함께 했다. 지극히 착잡한 이 삼개월간의 생활이 단적으로 요셉으로부터의 어떤 허락의 소식을 기다렸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때만 하더라도 간음죄는 돌 팔매질의 벌을 받는 때였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배고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나 요셉이 자기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아들일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오직 신앙으로만 극복할 수 밖에 없는 그녀의 두려움을 크게 자극시켰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입에 오르기 훨씬 전에 이미 마리아가 구사했던 것이다. 천사가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마리아에게 전하였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위로되었을까? 천사는 그때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였다 :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0)



마리아

그후로 몇달이 지난 다음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라고 자기가 받은 큰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는 그녀가 장차 태어날 아기의 탄생을 고대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해산달이 가까워지면서 아우구스투스 시이저의 세금령이 선포되고 누구든지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영이 내리자 마리아는 걱정과 불안에 쌓이게 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어차피 사백 리나 되는 험하고 긴 자갈길을 걸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하루에 육십 리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7일이나 걸려야 하는 길이었으니 아이를 배어 만삭이 된 사람에게는 참으로 힘든 길이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까지 얼마나 오래 베들레헴에 머물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아니면 며칠에 그쳤을 것이다. 어쨌든 마리아는 여인숙에 들어 있었고 그 여인숙의 마굿간으로 찾아 온 목동들이 “강보에 쌓인” 아기가 주 그리스도라고 천사가 전하였다는 증언을 하였던 것이다. 그후 사실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 갔으며 그곳에서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힘으로 그 아기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외쳤다. 동방 박사들도 자기들을 인도해 준 그 별이 머문 곳의 아기가 유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헤롯 왕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

었다. 베들레헴 안에 있는 두살 미만의 아기들을 빠짐없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증언과 증거는 예수 아버지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며 예수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마리아의 간증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해 주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임무는 참으로 중요했다. 비록 그가 예수의 어머니로서 그를 수태할 책임을 지고, 그를 뱃속에서 기르며 그를 가르쳤으나 그래도 예수는 그녀의 하나님이셨다. “하늘 아래 어느 다른 이름도” 그녀의 구원을 가능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묘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예수는 그의 모친을 공경하였다. 그녀가 성전에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자 예수는 그녀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 왔다. 가나의 혼례 식장에서는 모친의 간청을 들어 주기도 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모친을 돌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마리아도 그의 아들을 존경하였다. 그녀는 인류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 다른 사람을 침례의 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선교사를 아들로 둔 어머니만이 이때의 마리아의 기쁨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아들을 둔 궁지와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십자가에 달렸다가 무덤으로

옮겨진 예수는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다! 이러한 기쁨은 이 세상의 어느 어머니도 허가 받지 못했던 것이다.

마리아는 역시 무한한 슬픔의 맛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로서는 왜 그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또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왜 헤롯은 그를 죽이려 했을까? 왜 그의 이웃은 또 그를 박해했을까? 그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 왔으면서도 말이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이미 마리아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즉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하여 그를 산으로 끌고가 죽이려 했던가? 결국 그는 몸을 피해 내려와 스스로 죽음을 택할 때까지 피하지 않았던가. 사실 십자가 앞에 마리아가 었드려 있을 때도 그녀는 예수가 다시 한번 피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만신창이가 된 그의 아들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 마침내 그가 죽는 것이라고 확인한 순간 옛날 성전에서 시몬이 그녀에게 들려준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다. 즉 “또한 창끝이 그대의 영혼을 꿰뚫으리니”라 하여 이는 그녀의 고통이 극심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연민으로 가득찬 채 주위에 둘러선 제자들을 둘러 보고는 그의 모친을 향하여, “여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였고 그의 제자들에게는 “보라 그대들의 모친이라!”하였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녀를 부축하여 떠나게 하였다. 圖

로렌조 스노우 : 한 대학생의 결정

아더 아아르 베세트 저

선교 사업이나 군복무나 기타 종교적인 문제로 최초의 결심을 요청받을 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종교에 관하여 대학 생활에서 처음으로 심각하게 연구하게 된다. 몇몇 안되는 교회 초기의 지도자 중 한분이셨던 로렌조 스노우도 그의 대학 교육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학창 시절에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스노우 대관장님은 당시에 가장 재미있는 대학이었던 오베르린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다. 오베르린 대학은 장로교가 설립한 학교로서 잠깐 동안에 그 인기와 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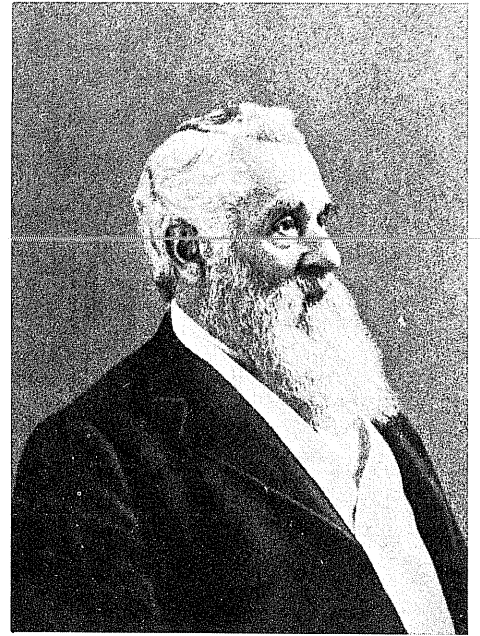
이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된 학교였다. 예를 들면 이 학교는 여자에게도 남자가 받을 수 있는 똑같은 혜택을 부여한 미국 최초의 남녀공학을 실시한 학교였다. 1830년 젊은 학도 몇몇이 노예 제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단합하여 이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일이 있었다. 이들은 신시내티에 있는 레인 실업 학교에서 일단 반대파에 밀려 그 구름이 1836년에 오하이오에 있는 오베르린으로 옮겨 와서 당시 뛰어난 교역자요, 오베르린의 교수였던 찰스 휘니 교수를 설득했다. 이러한 일은 로렌조 스노우가 오베르린에

다니고 있던 때에 일어난 일이었다.

로렌조 스노우는 자기가 자기의 입장을 설명한 말에 잘 그려져 있듯이 “한 젊은이로서 세상에 대한 야심과 자유로운 대학 교육을 통해서 이를 성취하겠다는 자신을 갖고” 꿈에 부풀어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다 그렇듯이 그에게는 역시 부유한 친구와 친지들이 가깝게 있으면서 그의 인생에서의 대성을 기대하면서 관찰하고 있었다. 당시의 젊은이들이 대개 그랬듯이 로렌조 역시 인생과 결부된 종교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스노우 대관장의 변해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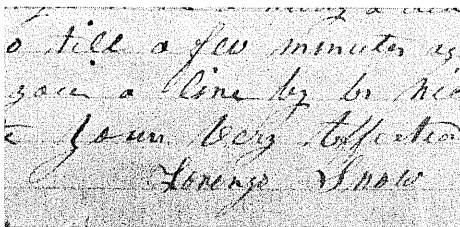


그러면서 학교 캠퍼스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하여 그 누이 엘리자에게 이런 글을 썼다. “만일 여기, 이 오베르린 대학에서 발견되는 이상의 것이 없다면, 아니 이것이 다라면 모든 종교와는 결별이야.”

늘 동생과 가깝던 엘리자는 그의 군대에 관한 비상한 관심 때문에 더욱 동생에 대하여 걱정을 했다. 두번째 독립 전쟁인 미국 전쟁이 끝날 무렵인 1814년에 출생하여 나폴레옹의 시대를 지내면서 로렌조는 군인의 호화로

스노우 대관장

역시 종교적인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모친은 당시에 바로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며 로렌조가 오베르린에 있는 동안 엘리



스노우 대관장의 서명

운 웅장함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엘리자는 늘 동생의 생명이 어느 낯선 전장에서 짧게 막을 내릴 것이라는 불안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로렌조 스노우 약력

연령	
1814. 4. 3	- 오하이오주 만투아에서 출생
1831	17 어머니가 교회에 들어오다.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듣다.
1835	21 오벌린 대학에 입학, 동생 엘리자알 스노우 교회에 들어오다.
1836	22 침례받다.
1837	23 오하이 오주에서 선교사로 일하다.
1838 - 39	24 - 25 파웨스트로 이사. 미드웨스턴 스테이크에서 선교사로 일하다.
1840 - 43	26 - 29 영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다. 물문경을 빅토리아 여왕에게 증정하다.
1845	31 결혼하다.
1846 - 48	32 - 34 평원을 횡단하다.
1849	35 사도로 성임되다.
1849 - 52	35 - 38 구라파에서 선교 사업을 하다.
1853	39 브리감 시의 개척 사업을 관장하다.
1872 - 82	58 - 63 유타주 의회 회장
1873 - 77	59 - 63 브리감 영의 보좌
1885	71 서북미주에서 인디안을 위한 선교사업을 펴다.
1889	75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다.
1893	79 솔트레이크 신전장이 되다.
1898	84 대관장으로 지지받다.
1899	85 십일조를 강조하다.
1901. 10. 10	87 서거하다.

자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옮겨 갔다. 로렌조도 물몬의 사랑에서는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녀는 로렌조를 커틀랜드로 데려올 기회를 엿보았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나 그의 영향을 받게 되기를 바랐다.

그녀가 바라던 기회는 왔다. 1836년 요셉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예언자 학교의 운영을 개시한 것이다. 미국 초기에는 모든 학자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반드시 배우도록 되어 있었다. 로렌조는 오베르린에서 고어 과정을 끝내기는 했으나 아직 히브리어를 배우지는 않았었다. 히브리어 교수였던 여수와 세익사스 박사가 예언자 학교에 채용되었던 사실을 안 엘리자는 동생을 커틀랜드로 초대하여 히브리어를 배우라고 권고하였다. 로렌조는 쾌히 승락하였다. 이미 지금은 그의 누이가 받아들인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로렌조는 그러나 그것이 커틀랜드로 첫발을 옮기는 그의 생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예측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예언자의 아버지요 당시 교회의 축복사였던 요셉 스미스 일세를 만나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자기의 궁지와 세상으로 향한 야심과 씨름을 하며 로렌조는 어떤 정신적인 투쟁에 사로잡히게 된 자기를 발견하였다. 그는 때때로 “성령에 가득하여 마치 하늘의 권세로 천사가 이야기하듯”말씀을 전하시는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언자의 온 몸에서 광채가 나고 “땅에 덮힌 흰 눈빛”같이 보인다고 느꼈다.

로렌조는 마음으로 크게 감동되었으나 그의 의지는 아직도 흔들리는 자기를 붙들고 있었다. 만일 로렌조가 그의 친구나 친지들이 열망하는

찬란한 내일의 꿈을 포기한 채 당시에 세상에 무지 몽매하고,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집단으로 알려진 물몬에 가담한다면 저들의 그 “실망과 실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사에 다정 다감하며 친절하였던 예언자의 부친은 젊은 로렌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시고 하루는 조용히 그에게 “염려하지 말게. 자네의 문제를 조용하게 주님께 말씀드리게. 이 말일의 사업이 참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실 걸세. 자네가 침례를 받기 원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러한 제안은 곧 젊은 로렌조를 움직였고, 그는 열심히 간구했으며 마침내 축복사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로렌조는 침례를 받았다. 그랬으면서도 그는 미흡함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의 의심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랐다. 그는 자기가 이미 받은 것보다 더 큰 확증을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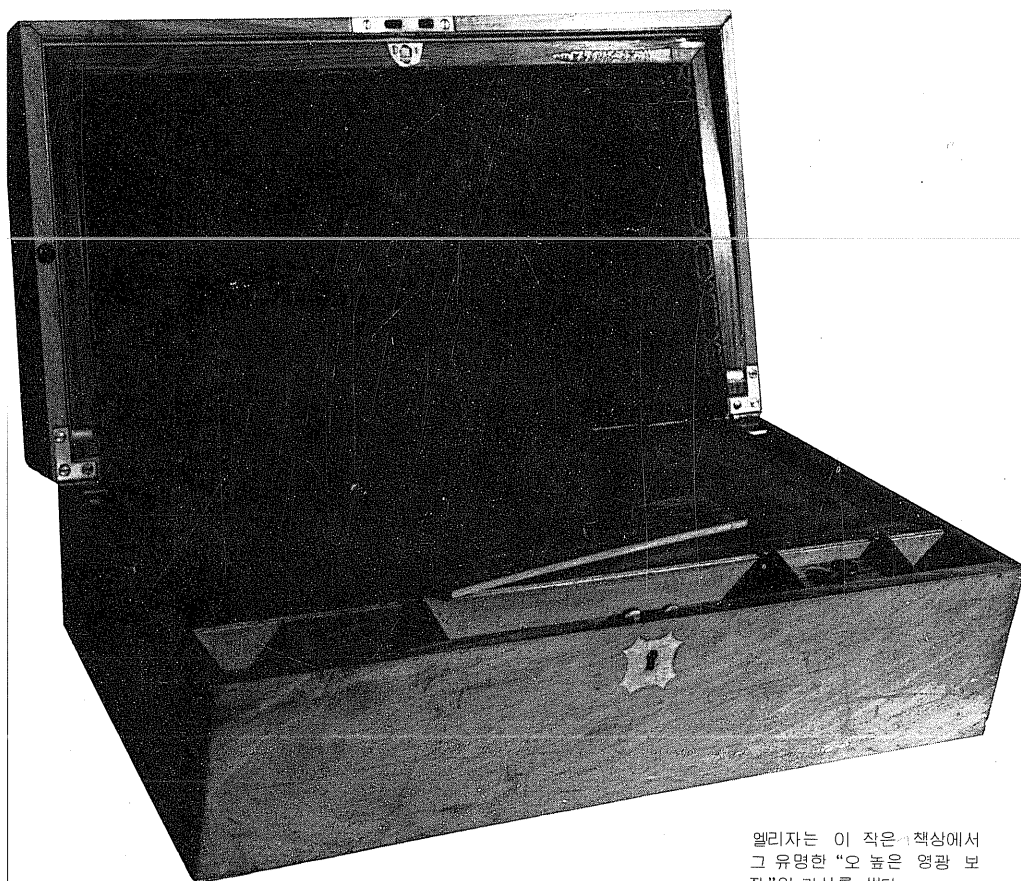
침례를 받은지 이, 삼주가 지난 다음 그는 자기가 원하던 어떤 확증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원하던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가 복음의 간증을 찾고 있던 때에 그는 그의 숙소 근처 숲으로 가서 매일 밤 기도를 구하였다. 하루 저

녁은 전혀 기도를 하고 싶은 요구를 느끼지 않았다. 마치 하늘이 남덩이처럼 그를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고 그는 후에 술취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할 마음이 아니면서도 그는 그의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 기도를 시도했다.

그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그는 전에는 맛보지 못한 희열을 느끼게 되었다. 그의 모든 의심은 사라졌고 그는 “육체로 경험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의 여동생 엘리자 아아르 스노우의 옷



엘리자는 이 작은 책상에서 그 유명한 “오 높은 영광 보좌”의 가사를 썼다.

하는 것보다 더 진하게” 영적인 침례를 경험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회복된 복음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그가 얻은 지식이 이 세상의 그 어느 재산보다도 더 값지고 훌륭하며 그 어느 명예보다도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하며 신앙의 뜻에 좇아 살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러므로써 그가 갈망하던 마음의 화평을 얻었다.

그러나 단 한번의 전쟁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이며 로렌조도 더 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쟁을 계속해야 했다. 그의 두번째 전쟁은 선교사로 봉사한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전직 목사요 대관장단의 일원인 시

드니 리그돈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렌조에게 학업의 계속을 권하였다. 그러나 오베르린의 학생이었던 로렌조의 마음에는 이미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잘 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어색하다고 했으면서도 로렌조는 불타는 내면의 요구로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결정했다. 그에게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당시에 대관장단에서는 장로 정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이름을 적어 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관장단의 승인이 있으면 성임하겠다는 것이었다. 로렌조는 그의 이름을 적어 냈고 이에 관하여, “이것이 공식적인 직책이나 부름을 위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천거한 최초의 일이었다”고 이야기했다.

1837년 봄, 그는 돈 지갑이나 주머

니를 갖지 않고 오하이오에서 선교사업을 하고자 길을 떠났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된 작업이었다.

“적어도 독립심이 투철치 못했던 나에게는 지갑이나 전대를 갖지 않고 길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나는 늘 “내가 나의 몫을 한다”는 공지가 필요했고 특히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는 더 그랬으며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럴 기회를 주셨다는 확신으로 나는 일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그의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였고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으며 나도 그대로만 한다면 생활에 필요한 양식은 나의 이웃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임부는 내게 너무도 분명했고 나는 결의가 대단했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주님께 향한 신뢰로 그는 그의 첫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그의 친척 아주머니를 찾아 방문하고는 무려 백리 길을 걸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 물몬으로서 첫 공식 제안을 해 보았으나 거절당하고 그는 노숙을 하게 되었다. 그는 그날 여덟 집을 두드렸고 “그저 잠만 잘 수 있게 해 주시고 저녁이나 조반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간청했다. 이것이 그의 선교사로서의 인사말이었으며 지치고 낙담케 하는 거절의 소리가 빗발치듯 했으나 그는 성도들과 함께 미조리 주로 옮기기 전까지 열심히 선교 사업을 이행했다.

1838년 가을 그는 또 다시 강열하게 선교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껴 온 여름 동안 질병에 시달린 몸을 이끌고 선교 사업에 가담했다. 이미 체력은 기진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충실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복음 전파를

부르짖고 나섰다. 처음에는 그저 가까운 거리를 여행해야 했고 억지로라도 앉아 휴식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는 그때의 선교사 기간에 네 주를 돌며 일했다. 2월에는 오히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를 켄터키에서 보았고 그 길은 눈이 깊게 덮인 이천 리가 넘는 길이었다. 그는 주머니에 단돈 1불 25전을 갖고 있었으나 주님께서 모두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 여행은 참으로 어려운 여행이었다. 눈과 흙 먼지, 그리고 비로 인해서 그의 양말은 늘 젖어 있었다. 잠자리에 모닥불이라도 마련되면 그건 행운이었다. 그 여행은 짧은 선교사를 완전히 기진시켰으며 그가 오히리로 돌아왔을 땐 그를 알아보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친구들의 간호를 받으면서 그는 여러 날 동안 고열로 누워서 앓아야 했다.

바로 이러한 선교 사업이 일찌기 로렌조가 체험한 선교 사업이었으며 그

후로도 그는 또 다시 선교 사업을 계속했다. 그 다음 해에 그는 영국으로 갔다. 사실 이일잔 그는 바다에서 온갖 폭풍우에 시달렸다. 그는 그 폭풍에 대하여 그의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다;

“샷상으로만이라도 저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망망한 대해에서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 근처에 있는 로프를 두 손으로 잡고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배는 미친듯이 이리 저리 밀리고, 태산같은 파도가 배 위에 있는 모두를 폭격시켜 줍니다. 지금 내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은 겁먹은 얼굴로 무섭게 찡그린 채 엉엉 울고 있고 물은 그 사람 위로도 몰아칩니다. 반대편에는 팔이 부러진 사람이 흠뻑 젖은 채로 일어 서려고 합니다.”

밀바닥에는 깨진 집 피착이 덩굴고 부녀자들의 울부짖음은 처참했다. 그러나 스노우 장로는 시종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로서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모습은 정말 누가 사도 바울을 묘사한 것과 흡사했다.

선교 사업에 관하여는 스노우 장로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많이 닮았다. 스노우 장로는 영국 선교를 마치고 다음 해에 이태리로 갔고 그후 스위스, 말라, 하와이를 돌아 성지로 갔다. 선교 사업을 마칠 때까지 그는 대양을 여덟번 건넌고 육십만 리가 넘는 길을 여행했으며 모두 자기가 비용을 부담했다.

스노우 대관장님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기억해야 할 여러 면을 지니고 계시다. 특히 그분의 부드러운 품성, 주님께 향한 깊은 헌신, 다스리는 자로의 탁월한 능력, 교육자로서의 인품, 그러나 모든 자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질은 뛰어난 선교사로의 자질이라 하겠다. 그의 행적 가운데 가장 특이한 행적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한 그의 선교 사업이다. 그는 상향회 선교사를 오륙 개월씩 다른 스테이크에 가서 봉사하도록 파견하였다. 그는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에게 일본을 선교 지역으로 열도록 지시하였다. 그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거론하였다. 그가 대관장으로 취임한 첫 해에 그는 선교사를 천명 이상을 불러 온 세상에 파견했으니 이러한 수자는 근이십 년을 두고 교회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수였다.

만일 젊은 대학생 로렌조 스노우가 종교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만 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인가! 圖



대관장 재직 당시에 찍은 사진으로 오늘 날에도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이다.

평화, 평화, 평화. 도처에서 우리는 평화를 갈구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평화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참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참되고 진실된 평화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평화를 찾는 방법을 몸소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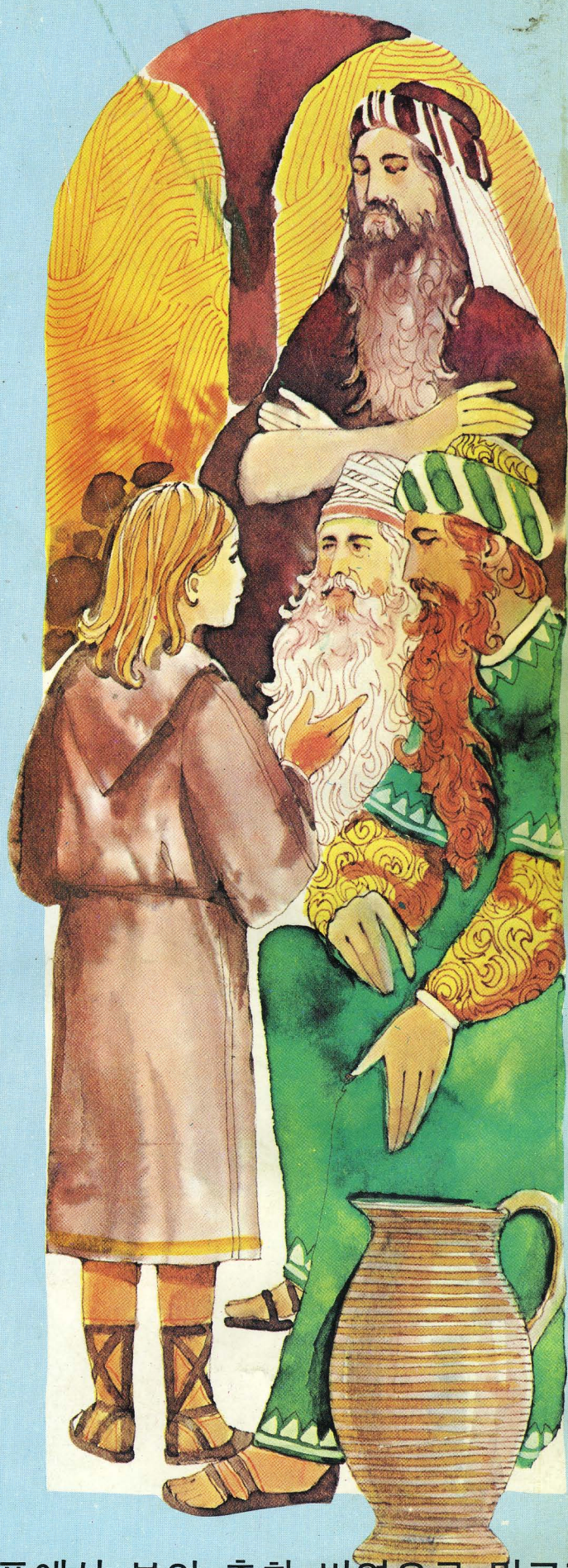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준 평화를 국가간의 조약이나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휴전과 같은 일시적인 평화는 아닙니다. 그가 준 평화는 그를 받아 들이고 그의 참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느껴집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평화를 느낄 때 훌륭한 아내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정은 화평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가족이 평안과 조화를 누리며 살때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도시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으로 가득찰때 그 나라는 평안과 조화를 누리는 국가가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평강의 왕이요, 만복의 근원이요, 국가들 가운데 조화의 열쇠가 되시는 구세주를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일성도로써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 소유자로써 우리는 이러한 평강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평안을 얻는 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훌륭한 평강의 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언자와 많은 영감에 찬 지도자를 주셔서 평안을 얻는 방법과 이를 적용하는 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교부장으로써 나는 여러분과 함께 구세주의대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이 기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때를 맞이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놀라운 메시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항상 우리가 구세주의 이름아래서 평강과 조화를 안고 함께 일함으로써 이 위대한 한국이 통일을 맞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선교부장단으로서 우리는 여러분이 즐거운 성탄절과 행복한 새해를 맞이 하도록 기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실천한다면 1973년은 한국 선교 사상 유래없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투표에서 보인 총화 번영으로 밀고가